

제35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2일(월)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산업경제실 소관
8.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가. 산업경제실 소관
9.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가. 산업경제실 소관
10.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산업경제실 소관

상정된 안건

1.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
(이정우·조철기·오인철·박정수·방한일·김복만·김응규·김민수·편삼범·안종혁·
이철수·신영호·김옥수·윤기형·홍기후·윤희신·정병인·이현숙·박미옥·유성재·
이종화·박정식·이지윤·전익현·박기영·오인환·주진하·이재운 의원 발의) 2면
2.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면
3.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면
4.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면
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현
의원 대표발의)(안장현·홍기후·정병인·박정수·김민수·정광섭·김응규·구형서·
편삼범·방한일·고광철·윤희신·전익현·김석곤·오인철·김옥수·오인환·윤기형·

이철수·주진하·이정우·박미옥·신순옥·이상근·이종화·김복만·김도훈·지민규·이현숙·박기영·김기서·유성재·박정식·이지윤 의원 발의)	18면
6.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현 의원 대표발의) (안장현·박정수·김민수·편삼범·정광섭·김응규·구형서·이연희·방한일·박정식·고광철·윤희신·전익현·김석곤·오인철·김옥수·지민규·오인환·윤기형·이철수·주진하·이정우·박미옥·홍기후·신순옥·이상근·이종화·김복만·김도훈·유성재·이현숙·정병인·박기영·김기서·조철기·이지윤 의원 발의)	18면
7.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실 소관	31면
8.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실 소관	31면
9.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실 소관	31면
10.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실 소관	31면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보충 질의 답변 시간

은 추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 1.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
(이정우·조철기·오인철·박정수·방한일·김복만·김응규·김민수·편삼범·안종혁·이철수·신영호·김옥수·윤기형·홍기후·윤희신·정병인·이현숙·박미옥·유성재·이종화·박정식·이지윤·전익현·박기영·오인환·주진하·이재운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정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도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책무 규정을 두고,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투자 소요액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의 사안을 포함한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대상자 발굴 육성 및 관련 기반 시설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 상권 창출 연계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산업체·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간 협력,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등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도출자·출연 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 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 자문 하기 위하여 로컬 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해 나가고 있는 점에 발맞춰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종혁**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 의입니다.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이정우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자연생태, 관광 및 문화자원 등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것은 자본의 창의적 활용, 지역 고유의 브랜드와 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며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종혁**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방안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 자체 사업 개발과 선도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의 자연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로컬 브랜드 상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청년 등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육성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시군과 협력해서 공주 산성 시장이나 제민천 거리, 부여 공예마을 등 로컬 브랜드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정부 공모 사업 대응 등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이정우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지민규 위원** 예,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이정우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실장님, 지금 사실 홍성이나 아산 사회 혁신센터, 도립대 등 다양한 충남 도외 곳에서 먼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충남 아산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하는 지원사업들을 올해도, 작년에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조례 덕분에 사업 시행한 만큼 그래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쪽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국비 확보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자원 확보 부분에서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뭐가 없습니다.

지금 단순히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창업가를 지원하거나 사회적 경제 혹은 청년 조직들에만 많이 넘어가 있는데 저희 충남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본 위원도 같이 공동발의 했지만 대표발의 하신 우리 이정우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라는 영어를 합친 단어보다 한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되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우 위원** 본래 보면 ‘지역가치 창

업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중기부에서 이것을 로컬크리에이터로 해서 공모 사업을 받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전체적인 지원서나 내용이 다 로컬크리에이터로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로컬크리에이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제가 그것을 뒤집을 만한 부분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7000만 원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는 등 또 지방에서는 4000만 원으로 상한선에 두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149 대 1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충남에서는 사실 창업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천안에 조금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 발의 하신 것을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조례 발의는 잘하셨는데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가치 창업가’ 이런 뜻인데 상위법에, 소상공인 기본법에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런 명칭을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래가지고 공모 사업에 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글을 사용하면 더 좋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린 거고, 하여튼 대표발의 하신 이정우 위원님 뜻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정우 위원님, 그러니

가 로컬크리에이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정우 위원** 예.

○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도 많이 연결돼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천안에서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발생하고 한동안 이슈였어서 제가 전국에 로컬크리에이터 관련한 분들도 만나보고 사업도 해 봤는데 이게 예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청년들이 많이 오고 새로운 문화,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목해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공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다른 데서 좀 해서, 소위 축제 같은 거 열어서 그때 반짝했다 그러면 성과 위주로 해서 갖다 놓으면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금만 투입시켜 놓고 시간 지나고 사업 완료 하고 끝나고 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제가 그때 무슨 말까지 했었느냐면 “차라리 여기서 창업하는 분들에게 현금성 지원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로컬크리에이터를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충남에 계셨던 분이 서울에 가서 이런 관련한 것들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내가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을 위해서 일해 보고 싶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쫓지 않고.

두 번째는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원 대상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시면 중기부에서 국비 같은 걸 따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충남에서는, 특히 천안에서는 대단히 많았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지는 않구나— 몇 분들이 딱 조건 맞춰서 천안에서 받았다가 천안 사업 끝나면, 다른 지역에 또 사업이 나오면 그 쪽으로 옮겨가서 또 만들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채용도 하고 이렇게 활동은 하지만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검토를 꼭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참여시켜야 될 분들이—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참여하는 위원들 선정에서도— 이전 방식하고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족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지에서.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경험치로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만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보기에선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실속은 없더라.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이 충남에서는 충남형이 잘된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더 질의하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금방 안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단체에 지원을 하면 선별 기준이나 성과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님,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죠?

○ **김도훈 위원** 예.

○ **위원장 안종혁** 그렇게 말씀 꼭 해주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로컬크리에이터 지정은 중기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42명, 42개 사업자가 지정돼 있는데 그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이 되면 4000만 원을 사업비로 줘요.

4000만 원을 주는데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발굴 육성 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로컬크리에이터로 지정이 돼야 중기부로부터 4000만 원을 지원 받으니까, 그렇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다 육성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성과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만들면서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지도 같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지원 내용에 앞으로 교육비,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장비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일종의 본인이 창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공간이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창업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걸 지역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기획자들을 발굴해주는 거잖아요?

○ **김도훈 위원** 예.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래서 그 기획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르게 창업 공간을 한다든지 현금성 예산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계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은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없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정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안종혁**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산업경제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등을 정비하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등 본 조례안의 일본식 문장 표현과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오류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충남테크노파크원장에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권 이전 기업 이주 직원에게만 지원하던 이주 직원 보조금을 도외 이전 기업 이주 직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 이주 직
원 보조금 지원 기업을 수도권 소재 기
업에서 도외 기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
9조에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 대상 확
대를 위해 후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 인용 조문 폐지 및 변경에 따라 안
제1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
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농공단
지 입주 업체 물류비 지원을 통해 생산
및 유통 활동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조례 정
비에 따른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과 조
문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입주 기
업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
설하였고, 안 제9조에 조례 정비에 따른
약칭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
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
의입니다.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
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
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조례 입법 평
가를 반영하여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 충
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
고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서면 심
의로 도입할 경우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 없이 서면으로 검토 의결 하는 형
식적 심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심의가 어떤 사안에 적용
될 수 있는지 심의 주제나 규모에 따른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법 통합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추정하고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도 도외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도 도외 지역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 최근 3년간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9조에서는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후단 조문의 삭제로 기존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기존 사업장 인수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신규 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이 감소하여 오히려 신규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관광사업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투자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 만큼 보조금 지원 기업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이행하고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한 사

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 등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농공단지가 충남 산업단지 생산업 비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충남 농공단지에서 내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 보조금 지원 등 입주 기업체 지원사업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물류 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8조 입주 기업체 지원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원 금액이 입주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정도의 금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 **위원장 안종혁** 이상의 수석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
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
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서면 심의를
적용할 수 있는 주제나 규모 제한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심
의 사항 중 국가 공모 사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서면 심의
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수립된 종합
계획이나 시행계획의 단순한 내용 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도 있는 운영을 위
해서 서면 심의를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수
도권에서 도외 지역으로 이주 직원 보조
금을 확대하게 된 배경과 최근 3년간 이
주 직원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
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주 직원 보조금을 확대하게 된 배경
으로는 그동안 이주 직원 보조금은 근로
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수도권
이전 기업에만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을 수도권을 포함해서 도외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숙련된 근로자들
의 도내 이주를 장려하고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도내 인구 증가를
유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은 총 4개 기업
13건이 신청되어서 796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 조례와 관련해서, 관광사업 개
정과 관련해서 신규 투자 유인을 저해하
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
니다.

지원 규정 마련 이후 현재까지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관광사업 유치 필요성과 관광객 유입
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지원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규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문제점 발
생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도내 관광사업
지원 대상 4개 업종을 보유한 기업은
672곳으로 최근 10년간 1000억 이상 투
자나 상시 고용 인원 300명 이상 사업장
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
존 관광사업장을 인수 투자 하는 기업에
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업 투자액 대비 지원 범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
습니다.

투자액 대비 지원 범위는 현재 조례상
에는 관광사업 1000억 이상 투자 시 도
비 100억 원을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지원 비율은 제조업 분야의 투자유치 기업과 마찬가지로 토지 구입비의 40%, 건축 시설 설치비 등 설비 투자비의 14%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투자유치 촉진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하되 지역에 따라서는 3 대 7, 4 대 6 또는 5 대 5 부담 비율로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 충남 내 농공단지의 비중과 내국인 취업비율 등에 대한 현황 제시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내 농공단지는 총 94개소로 산업단지 176개소 중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생산액은 15조 856억 원으로 산업단지 125조 9434억 원 중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내 내국인 취업 비율은 농공단지 전체 근로자 총 3만 8873명 중 내국인이 3만 7234명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내에 물류 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류비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이며 생산품의 판매 및 자재 반입 등의 물류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촉진을 위해 매출액 1500억 이하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비 지원 범위는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 지원과 자재 구입 등의 반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 기업체 지원 금액이 입주 기업에 도움이 될 정도의 금액인지에 대

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례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물류 보조금 지원사업과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물류비를 기업당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출 및 판로 개척 지원과 노무·경영·마케팅 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산업경제실장님, 우선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설되는 조항이요, “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답변은 제가 지금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 조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 안건을 받아 봐서 검토하신 분들이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서명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안종혁** 서면으로 하는 거에

대해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 서면으로 해서, 소위 부정하게 하는 거죠.

직접한 게 아니고 확인해 봤더니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안전 장치는 있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다른 위원회들도 마찬가지로 - 주요 사항이나 기본적인 규정은 대면 심의를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저희들 운영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대면 심의를 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요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 말고도-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좀 더 충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거는 공무원들의 시각을 벗어나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보안 장치로 서면 질의 같은 거 했을 때 사인으로 하세요, 도장으로 하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사인으로 하고 있죠?

대리 사인도 발견됐던 적이 있어서 그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도장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안종혁** 여튼 도장이든 사인이든 간에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그분이 직접 봤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을 향해) 위원님, 저 마저 다 끝내도 될까요?

○ **김도훈 위원** 예.

○ **위원장 안종혁**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서, 또 신설입니다.

“1.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2. 그 밖에도 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보조금이 현금이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현금을 지원한다는 거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말씀하신 8조에 1호 물류보조금 지원은 현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2호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판매 촉진을 지원한다든지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간접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현금 지원이 맞고요.

○ **위원장 안종혁** 대상이 매출액 10억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1500억 이하,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10억 이상 1500억 이하인데 연간 500만 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물류비는.

○ **위원장 안종혁** 그렇죠, 물류비는.

뭐 조금이라도 한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매출액 10억 이상 매출액 1500억

이하로 대상하게 되면 한 트럭 나가는 정도 아닌가요, 물류비로 하면?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이랑 똑같은 논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기업들이라는 게 120억 이하인 데들이 소기업이거든요.

거의 90% 정도가 소기업이거든요.

연간 매출액이 최대로 120억이라고 봤을 때 물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 생각을 해 보면 10% 미만일 거거든요.

10%를 넘지 않을 거고…….

○ **위원장 안종혁** 10%면 물류비가 120억이면 12억이고, 거기에 50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류비가 10%까지 들어가…….

○ **위원장 안종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텐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타 시도의 사례를 쪽 보니까 저희가 500만 원 한도로 해서 했을 경우에 66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데 3개의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전북·강원·경북 이런 데들이 총사업비가 50억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에 총액 66억 정도면 첫 시작으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심사하는 도중에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경기와 여건 속에서 또 우리도 어려운 재정 속에서 그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어요.

경기과 재정 조건이 좋으면 그 이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요즘 힘들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문제없는데

조례안 답변하셨을 때 10억 이상 1500억 원 이하로 본다면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10억 미만에서도 500만 원 지원해서 당장 도움될 만한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 매출액 5억 이상까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매출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농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 수가 1291개더라고요.

○ **위원장 안종혁** 그중에서 평균적으로는 다 높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그중에서 10억에서 120억 사이가 1113개예요.

○ **위원장 안종혁** 제일 많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86%.

주로 정책의 수혜 대상 기업은 86%가 해당이 된 연매출액 10억에서 120억 사이가 대부분이 될 거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억 미만의 업체들이 거의 없고, 제가 아까 1500억 말씀드렸잖아요.

120억 이상 1500억 이하의 대상자들도 10% 미만일 거고, 주요 대상자들은 10억에서 120억 사이 그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농공단지 특성상 물류비용이 다른 산업단지보다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소규모로, 조그만 수 단위로.

○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가 꺼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9 조예요, 후단 삭제 한 거.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이걸 왜 삭제하시는 거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사업만 제외되고 있어서 다른 제조기업이나 지식정보산업 이런 업종이랑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종혁**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장들 있잖아요, 제조업하는 공장들.

○ **위원장 안종혁** 지금 제9조 관광사업 지원이잖아요.

이거만 말씀을 주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랑 형평을 맞추려고…….

○ **위원장 안종혁** 일반 업종하고 제조업 이런 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신설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개정하는 거죠, 신설은 아니고.

○ **위원장 안종혁** 삭제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다해 주셔서 할 게 없는데요.

○ **위원장 안종혁** 안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장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려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기획조정실에서

개발공사를 통해 매입하였던 덕산 호텔과 관련하여 향후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항을 없애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이 조항을 삭제하면 -있을 때는 안 됐는데 혹여나 이거를 삭제하니까- 향후에 그걸 활용할 때 가능해집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가능하죠.

○ **안장현 위원** 그 전에는 안 됐었죠, 신규가 아니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떤 사업자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사례 그대로 말씀드리면- 덕산온천 플러스해서 옆에 확장하는 개념으로 사업자가 들어오면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한 거고, 덕산온천 그 부지만 활용한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지원대상이 안 될 거고요.

그런데 거기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지금 도고에 있는 스파 시설 중에서도 비어 있는 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 시내 홍주온천인가 거기도 좀 그렇고, 사실 해당되는 시설들은 많아요.

기존 사업장을 임대나 구입했을 때 못하게 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금액을 너무 높여 봤어요.

1000억 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제조업도 1000억 원 이상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조례는 있는데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실효성 있는 조문은 아니다.

○ **안장현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로서의 수명이 다한 경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잘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아니면 그 지역을 -진정으로- 리모델링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꼭

필요한 일이 될 수 있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개정하시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도 사업이지만 도내에 방치되고 비어 있는 관광 사업장들이 참 많아요.

그거를 계속 방치시킬…….

○**안장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주 직원 보조금 중에 과거에는 수도권으로 한정했는데 이거를 도외 기업으로 넓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이전해 올 때 수도권 이전 보조금도 그래서 한정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해서 구미나 경북 쪽 아니면 대구·경북 쪽에서 오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특징,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오는 트렌드잖아요, 실적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오게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가만히 놔둬도 아산이나 천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왜? 이곳에 가까이 와야 되니까.

굳이 이런 조항을 안 해도 올 것을 이렇게까지 넓히는 것에 우리가 재원이 가능할 것이냐는 하나가 있고요.

수도권 기업을 이전함으로써 생겼던 국비 지원 이런 게 이렇게 열면 국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오롯이 지방비로만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안장현 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

이나, 아니면 어차피 올 건데 우리가 소중한 도비를, 지방비 보조금까지 주는 것이 우리 형편상, 지방정부의 재정상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수도권 이전 기업이 당연히 충남에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랑 경쟁하고 있는 충북도 이미 이 조례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면에서만 볼 때는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데,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광주라든지 그다음에 전북의 새만금 이런 쪽도 공항도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충남 천안·아산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올 수 있는 데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충남뿐만 아니라 광주·경북이 굉장히 투자 유치 잘하고 있어요.

그런 지리적 접근성이 수도권하고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한테 뺏긴다면, 올 수 있는 것을 놓칠 때 더 피해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정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은 도에서 연간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아요, 도비만.

전체적으로는 1억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한 해에 도와 시군 해서 -국비는 아니고- 1억 1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업들을 보다 더 유치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좋은 기업들을 그런 쪽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도비 부담이 있지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실 실

제 이주한 직원 수가 -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대상이 1억 안팎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해야 100명, 100명도 안 되겠군요, 50명 기준이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투자 유치 협약을 하면 그 해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몇 년 있다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규모가 20명 이상인 데만 되니까…….

○ **안장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20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상을 정하신 게 매우 그런 거고, 애초에 지난 3년간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으나- 수도권 제외하고 도외 지역에서 올라온 기업들이 대부분 반도체·가스 관련,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 **안장현 위원** 거의 그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산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도 있고…….

○ **안장현 위원** 그런 데이터를 보고 질의한 거고, 사실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대상을 좀 넓혀보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넓히는 것이- 그리고 대상 금액이 저는 몇십억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직원 1인당 100만 원을 한 번 주는 거잖아요, 3년 지났을 때 한 번…….

○ **안장현 위원** 한 번 100만 원 주는 건데 이게 1억이라고 그러면 100명 정도 이주해 온다라고 하는 게…… 그 또한 현실이네요.

사실 뭐 하나라도 유치해 오려면 쓰는 게 맞겠죠.

다만 효과성에 대한 질의였고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 그거 효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

드린 9조에 대한 위원회의 토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잠깐 정회 좀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45분 속개)

○ **위원장 안종혁**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3항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나 보조금 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영업 기한 명시 등을 규칙에 담아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2항 안 했구나.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50분 속개)

○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충청남도 노사

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현 의원 대표발의)(안장현·홍기후·정병인·박정수·김민수·정광섭·김응규·구형서·편삼범·방한일·고광철·윤희신·전익현·김석곤·오인철·김옥수·오인환·윤기형·이철수·주진하·이정우·박미옥·신순옥·이상근·이종화·김복만·김도훈·지민규·이현숙·박기영·김기서·유성재·박정식·이지운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현 의원 대표발의)(안장현·박정수·김민수·편삼범·정광섭·김응규·구형서·이연희·방한일·박정식·고광철·윤희신·전익현·김석곤·오인철·김옥수·지민규·오인환·윤기형·이철수·주진하·이정우·박미옥·홍기후·신순옥·이상근·이종화·김복만·김도훈·유성재·이현숙·정병인·박기영·김기서·조철기·이지운 의원 발의)

○ **위원장 안종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장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장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장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네 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정책 실무자를 모시고 진행한 충남 사회적경제 현실과 과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의 확대 조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내는 ESG 수치를 낼 수 있는 임팩트 투자 유치를 통해 충남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로 연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와 5조는 기금 조성 및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충청남도 노사분쟁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조정중재단의 노동관계의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사분쟁의 장기화 예방 및 노사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충남의 노사 중재단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서 사적 조정을 통해 노사분쟁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러 번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하여 제4장을 신설하였고, 그 안에도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회 조건, 조정중재단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조례안은 각각 서른네 분, 서른여섯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자문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부록 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록 8.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위원장 안종혁**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 의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안장헌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 조성 및 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신설과 각 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에 특화된 지원과 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맞춤형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자 계정 투자 계정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조직의 상황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과 기금 운용을 확대할 경우 앞으로의 전반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안장헌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를 통해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위원회 임기 등을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정중재단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안 27조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노동분쟁 관련 연구 등 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 간 입장을 사전 조정 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하여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재단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정기회는 매월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중재단 구성 및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외 1건)

○ **위원장 안종혁**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반적인 기금운용계획과 그동안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20억 원 조성 목표로 현재 16억 8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융자금은 신탁 지원 200억 원으로 현재까지 130개 기업에 79억 4000만 원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미회수 융자금에 대한 손실보전금, 기업 융자 이차보전금이며 2024년 10월 현재 손실보전금 1억 원, 이차보전금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제2차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기금 조성 재원을 시군 분담금과 투자 회수금 등으로 확대해서 2029년까지 30억 원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융자에서 투자까지 확대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중재단의 구성 및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은 현재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이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청의 근로감독관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확대 구성 할 계획입니다.

회의 운영 계획은 현재와 같이 월 1회 정기회 및 사업장 조정 활동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 개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안장현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면 저부터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에요, 지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5년간.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금년 말에 존속기한이 종료되게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안종혁** 그래서 기존 조례에는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개정이 5년 더가는 거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 근거에 따라서 기금 운용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그

래서 금년 말에 종료되니까…….

○ **위원장 안종혁** 분석한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10월에 용역을 마쳤고요, 성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기금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연장하려는 겁니다.

○ **위원장 안종혁** 용역을 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용역은 얼마짜리예요? 용역 자료 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정책 현안 과제로 충남연구원에 준 거여서 별도로…….

○ **위원장 안종혁** 그 자료 결과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 자료 좀 주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바로 주세요.

그리고 제15조 “업무의 대행”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그게 기존에는 없던 건데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업무의 대행이?

신규인가요?

15조가 달라졌거든요?

원래는 제15조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이었는데 제15조가 “업무의 대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기존 15조, 16조를 삭제하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마련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기금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혹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안종혁** 15조, 16조는 기본적으로 원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하고 해촉은 조례에 거의 담겨져 있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삭제하는 거는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규정이 돼 있어서 각 개별 조례는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 **위원장 안종혁** 그러고서 업무의 대행만 하나 된 거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산업경제실에서 기금 몇 개 운영하시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기금 2개 있고 특별회계 있고…….

○ **위원장 안종혁** 기금 심사 할 때 그러면 이거 다…… 기금 몇 개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3개라고 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기금 3개 중 위탁하는 거 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의 일부를, 벤처투자 하는 거 있잖아요?

○ **위원장 안종혁** 예.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 일부를 경제진흥원에 대행하게 했었고요, 하다가 금년에 회수를 했는데 그때 조례를 바꾸면서 했던 거는 아니었고 근거 조항은 다 이렇게 해 놓고 있었죠.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투자 부분이 있으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죠.

○ **위원장 안종혁** 투자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네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계정 때문에, 과거의 선례가 투자에 관한 것들은 대항하게 한 적이 있어서 근거 조항을 둔 거죠.

○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항을 해서 하는 게 안정적이거나 운영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올 초인가, 후반기 원 구성 할 때인가 확실치는 않는데, 저는 투자 계정에 대해서 업무 대항을 주는 게 비효율적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회수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렇게 둔 거는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거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둔다는 취지지 업무 대항을 꼭 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안종혁** 예, 알겠습니다.

안장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꼭 여기 조항에 들어가야 되나요?

○ **안장현 위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기금 운용은 당연히 운영 주체인 관리관이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중 임팩트 투자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것만큼은 전문성 그리고 민간이 훨씬 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를 받은 것, 운영하는 것 자체는 민간이 됐건 공공기관이 됐건 위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안장현 위원님은 지금 개정안처럼 이렇게 두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신 거지요?

○ **안장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니깐요, 지금 전문관을 통해서 펀드를 우리 도청에서 직접 운영 하고 있는데 - 거기서 이걸 “운용할 수 있다” 하는데 - 아마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역량을 여기에 다 쏟을 수 없다면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가열차게..... 실장님이 실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이거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쪽 조례 말고 직접 도에서 가지고 와서 하신 게,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하여튼 뭐 저의 뜻이었습시다.

○ **위원장 안종혁** 1년 정도 돼서 다시 회귀하시는 건가 그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회귀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근거 조항을 둔다는 것이지 꼭.....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보면 업무 대항이나 위탁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종혁** 예.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 **위원장 안종혁** 제가 왜 이렇게 질문 드리느냐면요, 그때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고 그래서 ‘도에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한쪽으로만 딱 생각을 하셨구나’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서는 - 솔직히 이따가 본예산 심의 할 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 다시 또 여지를 열어둔다, 이게 의지가 달라지신 건가?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전혀 그렇지 않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위원의 임기”가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개정안은.

그러니까 당초에 제6조 “위원의 임기”로 해서 나왔는데 신설에 보면 제20조(임기) 해서 “공무원이 아닌 단장 및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9년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현재 조례상으로는.

○ **위원장 안종혁** 이것도 일반적인 건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다른 조례랑 맞춰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조례랑 비교한 걸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팀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지금 조례에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보면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조례가 재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정중재단의 특성상 전문적인 영역과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 필요해서 최대한 3임기까지 할 수 있는 조례안에 맞춰서 3임기로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안종혁** 이게 왜 일반적이라고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세 번 연임하면 경험이 축적돼서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노동환경들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도 필요한데 한번 시작하셨다가 세 번 연임해서 9년 동안 계속하시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면 그게 반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어쨌든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들이 필요해서 최대치인 3임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제 생각에는 재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3년간 세 번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 **위원장 안종혁** 예, 들어가셔도 돼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임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깊이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 취지가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제가 봐도 조금 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안종혁** 안장현 위원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 **안장현 위원** 제가 알기로 노사중재단의 단원이 전에 노동지청장을 하신 경험자 그리고 사측의 임원, 인사 관련된 임원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험이 많은 조직 대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노무사들로 돼 있는데, 노사 중재라고 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공적 중재 이외의 사적 중재는 노사 양측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법적인 가이드 라인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역량이 축적된 것을 더 활용하기도 하고 기간을 길게 주는 것이 운영에 그리고 실적을 내기에, 노사 중재 결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노사중재단 구성원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이정우 위원** 제21조에 보면 “조정중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도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20명 위원회에 간사를 왜 2명씩이나…….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노동위원회 정부 쪽 1명이랑 우리 충남도 쪽에 1명씩 두려고…….

○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33분 속개)

○ **위원장 안종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현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금 관련된 존속기한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 주셔서 기금 존속기한을 지켜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실장님, 몇 개 여쭙볼게요.

제가 사회적경제기금 용자 신청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5년 동안 124개 기업이 신청했고 62개 기업이 대출 확정

된 게 맞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130개 기업에 79억 4000만 원 용자가…….

○ **지민규 위원** 제가 받은 거에서는 124개던데요?

(「3000만 원 이하까지 하면」하는 이 있음)

아, 3000만 원 이하는 빼고요, 그러면 총 130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지민규 위원** 그중 53건이 중도 및 만기 상환을 했는데 최근까지 포함해서 지금 5건이 폐업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상각된 게 다섯 군데 맞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내역을…….

○ **지민규 위원** 최근에 하나 추가가 돼서 5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가 70%를 부과해서 1억 800만 원 손실을 부담하게 됐네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우리가 다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부실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어려운 기업들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들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영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상각 처리 된 5개 기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대출 이후 도내 관련된 지원사업 받은 현황을 -도내 기관 포함해서 있으면 같이 - 체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하겠습니까.

○ **지민규 위원** 두 번째로 존속기한과 함께 이번 조례개정안에 추가된 것이 투자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지민규 위원** 금년 10월에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 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가 충남연구원으로부터 나왔는데 정확히 언제 나왔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10월…….

○ **지민규 위원** 10월 며칠날 나왔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날짜가 며칠날…….

날짜는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자, 그러면 동시에 2차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 일자는 어떻게 되시죠?

기본계획도 10월에 수립됐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세부 날짜를 파악을 못 해서…….

○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 **지민규 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 **지민규 위원** 충남연구원으로부터 보고서가 나온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최종 보고서 발간일은 10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중간 보고가 있었고 서로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미리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민규 위원** 어쨌든 최종 보고서가 나온 날짜가 언제죠?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10월 초로만 기억을 해서, 잠시만 정확히 확인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본계획 수립 일자는 언제죠?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결재 일자가 아마 10월 17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지민규 위원** 위원회 개최는 언제 언제 개최되셨죠?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지막 육성위원회가 -출장 중이었으니까- 10월 그 주에 한 것 같습니다.

○ **지민규 위원** 정확한 날짜, 위원회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개최됐죠?

두 번 시기 둘 다 해서 저한테 바로 부탁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알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초에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며칠 만에 위원회 개최되고, 며칠 만에 기본계획 수립되고, 며칠 만에 위원회가 또 개최되고, 바로 또 며칠 만에 23일 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해서 조례안까지 나왔습니다.

20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죄송한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금 효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그래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존속을 한다는 것을, 전반기 의회 때문가요?

그 기금을 존속해야 된다는…….

○ **지민규 위원** 작년에도 계속 얘기하셨던 자료도 다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투자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

반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민규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기본계획을 보면 “투자 계정 추후 별도 검토”,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도 “향후 사회적 금융 여건 개선 이후 별도 검토 추진.”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투자 계정은요, 제가 방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그 내용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당장 내년에 할 계획은 없어요.

그쪽에 투자 계정을 신설해서 그렇게 투자를 할 만큼 사회적경제기금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계획은 현재 없는데 -제가 아까도 정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조문을 든 이유는 혹시 미래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준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다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라든지, 만약에 투자 계정을 내년에 운용할 생각이었으면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 계획은 내년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 제5조(기금의 용도)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투자조합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실장님,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뭐 뭐가 있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원 조직이요?

○ **지민규 위원** 사회적경제 조직에 뭐 뭐가 있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 **지민규 위원** 협동조합도 사채 반환이 가능한가요?

배당과 지분이 있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통틀어서 협동조합도 일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같은 것도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협동조합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업비 마련할 때 페이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법인으로 된 데들은 채무를 발행할 수가 있죠.

○ **지민규 위원** 협동조합은 상법상에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채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 계정을 받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민규 위원** 사회적경제기금 용도로 해서, 5조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직에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투자 계정에 해당되는 데는 사회적기업…….

○ **지민규 위원** 사회적기업만 가능한데 지금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다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포괄적으로 써 놓은 거죠.

○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이게 따지면 위배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들어 충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법령에서는 위배되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법에 안 맞는 데는 투자할 수가 없죠.

○ **지민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포괄적으로 쓰신 거죠, 이 중 협동조합은 안 되는데?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쓰셨어야죠,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전체로 명시를 하시면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운영상 운영하면서 당연히 상위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지민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얼마짜리인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안 과제로 충남연구원 자체 재원으로 한 겁니다.
 ○ **지민규 위원** 자체 재원으로 진행한 건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지민규 위원** 여기에서 쪽 봤는데 목표 수익률이 0%짜리 투자입니다.
 보셨나요, 혹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투자 계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민규 위원** 예.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임팩트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임팩트 투자가 경제적 가치 플러스 사회적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전반적인 취지 있잖아요, 저는 같은 생각이예요.
 같은 생각이고, 지금 이거를 당장 시행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향후 조례가 바뀌든 도에서 방향성들이 나올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잡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참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연구용역 보고서 자체가, 어쨌든 임팩트 투자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자본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재무적 수익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는데 목표 수익률은 0%짜리 투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투자 운용사의 출자는 10%인데 성공 보수는 기존 수익률 0% 해서 초과 수익의 20%를 줍니다.
 그리고 출자를 10% 했는데 수익은 20%를 주고 또 이미 3년간 결정액의 2.5%를 관리 보수로 주기로 돼 있는데 초과 수익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준다는 거죠.
 저희 기금은 어쨌든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기금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 이외에 소셜, 벤처, 로컬크리에이터, 스타트업에도 투자가 가능하게끔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 산업경제실에서 의뢰하신 연구용역이라면 도민의 혈세가 이런 결과로 창출하게 된다는 게 참 의아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꼭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29분 속개)

○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가지고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규 위원님.

○ **지민규 위원** 지민규 위원입니다.

투자 운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보강과 협의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존경하는 안장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회적경제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정하지 않

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민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민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민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장현 위원님은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안장현 위원** 예.

○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

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위원회 임기를 “3년 3회”가 너무 길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제20조(임기)를 “2년 3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훈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도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도훈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안장현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 **안장현 위원**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

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민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장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민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장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장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장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9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10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실 소관

8.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실 소관

9.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실 소관

10.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실 소관

(15시35분)

○ **위원장 안종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9항 충청남도 예산안, 제10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0억 733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1억 8894만 원보다 218억 8441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142억 94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8억 282만 원보다 214억 91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는 219억 626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8323만 원보다 15억 794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산업육성과는 253억 4384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4254만 원보다 8억 987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바이오산업과는 6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2900만 원보다 2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558억 5989만 원으로 기정예산 557억 7889만 원보다 8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653억 4992만 원으로 기정예산 642억 2007만 원보다 11억 29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는 396억 6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376억 9989만 원보다 19억 651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산업입지과는 993억 4524만 원으로 기정예산 846억 4921만 원보다 146억 960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000만 원보다 2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쪽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43억 1175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억 8084만 원보다 18억 309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1262만 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6726만 원보다 18억 45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7쪽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233억 966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6억 8100만 원보다 127억

15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액 내역은 펀드출자 원금 및 수입금 수입 15억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06억 784만 원 증액 등이며 지출 주요 증액 내역은 일반예치금 88억 9060만 원 증액, 시군경영안정기금 반환금 93억 원 증액 등입니다.

9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5억 3607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7700만 원보다 7억 590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7억 7033만 원 등이며 지출 주요 증감 내역은 미회수 보조금 2억 3718만 원 감액, 일반 예치금 11억 5303만 원 증액 등입니다.

10쪽 정의로운전환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72억 2113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7600만 원보다 2억 451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2억 4513만 원 이며 지출 주요 증액 내역은 태안군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 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 일반 예치금 2억 2513만 원 증액 등입니다.

11쪽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0억 434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32억 6073만 원보다 총 867억 82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건으로 미래산업과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350억 원, 산업입지과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300억 원 등입니다.

12쪽 세출예산은 3236억 281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56억 4238만 원보다 779억 857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 다.

13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 다.

미래산업과는 586억 2118만 원으로 전 년도 본예산 187억 7823만 원보다 398억 429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산업육 성과는 288억 1372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258억 5154만 원보다 29억 621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바이오산업과 는 87억 505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억 2900만 원보다 49억 215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 다.

14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659억 1420만 원으 로 전년도 본예산 523억 7884만 원보다 135억 35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416억 1084만 원으로 전년 도 본예산 289억 8266만 원보다 126억 281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 다.

일자리기업지원과는 326억 9287만 원 으로 전년도 본예산 368억 2027만 원보 다 41억 274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 며, 산업입지과는 872억 247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90억 183만 원보다 82억 229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 다.

1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도 본예산 51억 6000만 원보다 36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28 억 7500만 원 감액입니다.

16쪽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31억 4562만 원으로 전년 도 본예산 224억 5300만 원보다 6억 926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 산은 196억 76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 산 182억 9400만 원보다 13억 8285만 원 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 다.

17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 계정입 니다.

기금운용계획은 630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1106억 8100만 원보다 47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입 주요 감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234억 6873만 원 감액,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1억 9840만 원 감액 등이며 지출 주요 감액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94억 7500만 원 감액, 일반 예치금 462억 5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1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 계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85억 4500만 원으로 수입 주요 편성 내역은 펀드 출자 원금 및 수입금 수익 5억 원, 융자 계정 전입금 80억 원 등이며, 지출 주요 편성 내역은 출자금 80억, 일반예치금 5억 4300만 원 등입니다.

20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3억 505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7700만 원보다 5억 73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5억 6476만 원 증액 등이며 지출 주요 증액 내역은 일반 예치금 6억 1750만 원 증액 등입니다.

21쪽 정의로운전환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55억 9950만 원으로 전년도 69억 7600만 원보다 13억 76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감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13억 9154만 원 감액이며 지출 주요 감액 내역은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사업비 20억 2250만 원 감액 등입니다.

22쪽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

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 의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310억 73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1억 8893만 원의 20.04%에 해당하는 218억 844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142억 94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8억 282만 원의 7.34%에 해당하는 214억 91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 세출 증감 내역,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을 보면 먼저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1차년 국비 매칭을 위한 도비 부담분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도비 27억 9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5월 고용노동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부담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집행 가능 일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액 삭감 사업을 보면 먼저 지방은행 설립 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감액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후 전선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으로 시군 미신청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노후 전선 정비사업 미신청 사유가 도와 시군과의 협력 및 홍보 등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와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다리다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감액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증액 사업을 보면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관련입니다.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1개사에 대한 사업비

를 추가 편성 하는 것인데 기업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보조금의 종류, 그동안의 지원 현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000만 원의 48.45%에 해당하는 2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부여군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조정 계획에 따라 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5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142억 25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43억 1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억 8084만 원의 8.14%에 해당하는 18억 30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00억 1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6725만 원의 10.16%에 해당하는 18억 45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 세출 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마을회관에 태양열 설치 지원 및 농산물 건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나 논산시, 서천군, 홍성군의 사업 포기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3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량이 당초 3280가구에서 7000가구로 총 3720가구가 늘어났는데 기존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 시 추가 대상 가구를 담당할 시공업체나 인력이 충분한지 해당 사업비를 기한 내에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100억 규모의 출자금 지출되었는데 벤처투자를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금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립 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이 7억 7033만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조직의 자립성과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결과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회수된 예치금의 사용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입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전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탈탄소사회와 에너지 전환 이행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에 설치된 것으로 기정액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 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500억 43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32억 6072만 원의 137.18%에 해당하는 867억 827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236억 28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56억 4237만 원의 31.75%에 해당하는 779억 85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2억 6072만 원 대비 867억 8273만 원이 증액된

1500억 4346만 원이며 주로 국가보조금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구성됩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총사업 기간이 2020년~2027년이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비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을 보면 우선 천수만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본 구성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천수만 B지구를 중심으로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설계, 사업 추진 방안, 관련 기업 및 기관 유치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 수행이 요구되는데 용역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역대학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산업육성과로 이관되어 3개 대학의 학생 교육 및 인력 운영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활동비 등이 지원되는데 자세한 사업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관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과 대학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액 사업을 보면 우선 지역 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이 도민에게 지식재산 창출·창업을 하는 사업으로 충남상공회의소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국비 22억 3000만 원, 도비 21억 6400만 원으로

총 43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총 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 성과,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상 간접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설치된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도비 2억 4443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규모, 지원대상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그동안 매출채권 회수율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삭감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6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468만 원이 삭감된 사유와 이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1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 삭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쪽,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산업단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51만 원이 감액 편성 됐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감액된 사업이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지, 감액된 예산으로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계속사업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보전 사업 관련입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도비 6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나 시군비는 30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시군비만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새로운 농업의 선도 모델을 만들기 위한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 편성 하였는데 도비 28억 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설명서 684쪽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내포 지역만의 특화된 농생명 클러스터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출연 사업을 보면 우선 충남 양자산업 기반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시 충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2억 원을 의결하였으나 본예산 사업설명서 70쪽의 산출기초를 보면 연구용역비를 제외하고 5000만 원만 편성하였는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추진 계획안 심사 시 6억 원을 의결하였으나 출연계획안 심사 대비 3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수혜 기업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위탁 사업을 보면 충남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가 위탁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들을 도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재정사업 평가를 보면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첨부서류 23쪽에 따르면 2024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서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되었는데 예산 집행률, 성과지표, 운영 효율성 등 어떤 지표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향후 미흡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운영 방식 개선 등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인물 21쪽,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51억 6000만 원보다 36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같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태안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태안군의 청년 창업 비즈니스센터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31억 45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4억 5300만 원의 3.08%에 해당하는 6억 926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96억 76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2억 9400만 원의 7.56%에 해당하는 13억 82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같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관련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상업·주택 등에 재생에너지 설

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768쪽에 따르면 전년도보다 3억 449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나머지 3개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개념 에너지기술(그린올) 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그린올로 전환하는 대규모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LG화학, 충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하며 총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그간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조기 보급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 했는데 증액 사유와 그간 보급 및 설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인물 25쪽,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같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과 지출 총액이 전년도보다 47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의 미흡한 점으로 건전성 악화를 꼽고 향후 조치 계획으로 2025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75억 원이 감액된 사유와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펀드 사업인 만큼 기금 운용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다음 사회적경제기금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수입과 지출 총액이 전년도보다 5억 734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금 용자는 1기업 최대 3억 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업이 3000만 원 이하의 용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력·담보 등 금융 역량이 부족한 것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재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용자 상환율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 지역영향조사에 3억 8000만 원, 당진 석탄발전 관계자 재취업 교육에 2억 3000만 원, 태안석탄화력 노동자 역량 강화 지원에 1억 2500만 원, 태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주민교육 홍보에 3000만 원, 태안 이원 산업단지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에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해당 기금은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속적으로 운용할 필요에 따라 설치된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산업경제실-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 **위원장 안종혁**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도는 1차 연도로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10월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34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 후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는 외부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상반기 중에 개소를 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5월 고용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수행 기관에서 자체 재원으로 이미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행

기관이 자체 및 국비로 사업 진행한 후에 금년 이번 2회 추경에 대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해서 12월까지 전액 교부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은행 설립 업무 추진 관련해서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은행법에 따라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가 제한되고 지자체의 출자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지방은행으로 전환 가능한 저축은행이 우리 지역 내에 부재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은행 설립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감액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중기부에서 네 차례 공모 및 도 전통시장 사업설명회와 충남상인연합회 워크숍에서 해당 사업을 안내했으나 시군에서 미신청되어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모 선정 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지만 앞으로는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성립전 또는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신청되는 사유 중의 주요 원인인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기업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보조금의 종류, 그동안의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투자협약 체결 후에 도내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를 통해서 2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20명 이상 고용할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65개사 대상으로 46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여 일반산단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2022년 9월 산단 계획 승인 후에 전체 토지의 95%를 매입하였으며 잔여 토지 5%는 수용재결을 통해 '25년 상반기 중 매입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산단 조성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향후 산단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시군 사업 포기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3개 시군 19개소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3개 시군 모두 지역 주민들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유지보수가 곤란하고 안정적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각 시군에서 판단함에 따라 사업을 모두 포기하게 되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5년 수요조사 결과도 시군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현사업은 일몰하고자 합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추가 대상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시군 수요조사를 작년 3월에서 7월까지 했는데 3280가구 신청분에 대해서 본예산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그 후 산업자원부에서 추가 수요조사 요청이 있어서 이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3270가구 신청분이 추가됨에 따라 총 7000가구분에 대하여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총 7억 87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최종 지원 대상 가구 수는 7000가구로 2024년 3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관계 기관이 협의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7000가구 중에서 6500가구에 대하여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 20일까지 잔여 500가구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편성되는 추가 사업비는 예산 의결 후 신속히 시군에 교부해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를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금년에 도 출자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2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 중이며 누적 4900억 원이 운용 예정입니다.

그동안 펀드 운용 우수 사례는 충남 한화펀드 수익률이 215%를 달성했고 주식회사 엔캡은 코스닥에 상장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80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모태펀드 및 민간 출자금을 합쳐서 총 500억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도내 주력 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펀드 조성 방식을 다각화해서 당

초 '31년까지의 목표를 앞당겨서 2028년까지 펀드 1조 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예치금 회수액 증가 사유와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해서 수입은 계획 대비 이자 수입 3800만 원 등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계획 대비 미회수 손실 보험금 4억 3000만 원, 이자 차액 보전금 2억 7400만 원이 미지출됨에 따라 예치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회수된 예치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내년도에 미회수 손실보전금, 이자 차액 보전금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 기정액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재까지 산업부에서 특구 지정 세부 계획에 대한 고시가 발표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정 중인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신속한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관련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컨벤션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5년 2월에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3월에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27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국내 컨벤션센터를 방문해서 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2026년에 구체적인 센터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천수만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본 구성 용역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용역은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UAM 핵심 부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과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유치함에 따라서 이와 연계한 산단 조성 등 선제적 기업 유치 기반 조성이 필요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과 서산시, 태안군이 공동 부담 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첨단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최적안을 도출하고 관련 기업·기관 유치 방안과 지역 간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의 자세한 사업 계획 및 지역 반도체 산업과 대학 간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교원 및 실험 실습 기반 시설 조성, 기업 협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한기대와 호서대, 국립공주대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4억 원을 지원해서 1855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반도체 산업과 대학 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 대학이 보유한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등을 위한 산업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현장 연수와 재직자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는 등 지역의 반도체 기업과 대학 간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사업의 증액 사유 및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 지원사업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충남지식재산센터에 3억 5600만 원, 서부 지식센터에 2억 4100만 원 등 총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 성과로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 기술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상품화와 예비 창업자의 창업률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센터별 간접비 내역은 지역 지식재산센터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사업별 예산의 5% 이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증액 편성 사유와 지원대상업체 선정 기준 및 그동안의 매출채권 회수율 향상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5년 매출채권 보장 규모는 충남 자동차 연관 업종 2024년도 매출액과 평균 부실율을 계산해 봤을 때 총 8188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보장 규모 대비 1188억 원이 증가하게 된 값입니다.

보장 규모에서 평균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도비 지원율은 50%이므로 도비는 10억 644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는 전년 대비 2억 4444만 원이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규모는 2022년

통계청 기준으로 종사자 10인 이상 총남 자동차 부품 기업 수는 632개로 전국 4 위 수준입니다.

지원 기업의 선정 기준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중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관된 제조 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선정 절차는 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하고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출채권의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 회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감액 사유 및 감액된 예산으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지원 대상 범위가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한 경우입니다만, 추후 지원 신청 상황을 보면서 부족할 시에는 추경 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 예산 편성 목을 경상 보조와 자본 보조로 구분한 것으로 실제로는 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센터의 인건비를 자체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경우이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은 사무실을 충남공감마루로 활용하게 되어 임차료가 절감하게 돼서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의 수요와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감액 사유 및 감액된 예산에 대한 대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액된 사업 대부분이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이 전년 대비 신청이 감소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앞으로 시군 수요와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고 꼭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추경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이 전년도 대비 감액 사유 및 감액된 예산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비 감액 사유는 산업부와 국토부의 공모 사업을 유치하여 증액을 시켰고, 도 자체 공모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숙사 통근 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2억 951만 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국비 추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보전 시군비만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 지원 시군비 매칭 협약이 2022년에 있었는데 협약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순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비 30억 원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 사유 및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전액 삭감 사유는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연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도비 28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으로 내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도와 군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의 산출 내역은 측량, 지질조사, 문화재조사 등 사전조사 15억 원, 산업단지 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실시계획 수립 55억 원, 개별법에 따른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포 지역만의 특화된 농생명 클러스터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과 산업을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클러스터에는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고 스마트팜에서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작물을 재배하고 산업단지에서는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소재로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연구지원단지에서는 농생명 자원의 연구개발을 통해 그린바이오의 작물을 고도화하고 다양화시키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집적단지 내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의 새로운 선도 모델을 구축해서 청년농 유입과 농식품 수출 증대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양자산업 기반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제외 사유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사유는 당초 외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예산 절감과 우리 도 산업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자체 수립코자 합니다.

충남연구원 전략 과제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충남의 여건에 맞는 양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을 충실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융합 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후순위 사업으로 조정돼서 수혜 기업의 높은 만족도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추경 시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소상공의 날 기념 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충남 우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의 대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작은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지원사업 또한 산업 안전과 보건 분야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단체의 역량 강화나 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재정 사업 평가가 미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선은 에너지센터 역할 중 신산업 기획을 신산업 정책으로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평가 의견이 있어서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산업 정책은 포괄적인 신산업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특수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만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므로 현재로서는 통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성, 홍보성 사업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사업은 단순한 행사 홍보가 아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과 연계해서 도내 수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를 통해서 판로 개척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앞으로 평가 시에 충분히 납득시키도록 해서 미흡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청년 창업지원사업의 그동안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해서 입주 기업 사업화 지원과 창업 교육·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센터를 개소해서 2024년 11월 현재 30개 기업이 입주 중이며 고용 인원 147명, 시설 이용 건수 1048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융합 및 구역복합 사업 증액 사유 및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시군 사업 계획서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종 사업량은 3193개소에서 3569개소로 376개소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총사업비도 6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시군 사업 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25년에는 15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개념 에너지기술 그린올 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과 관련해 그간의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중부발전 석탄화력에서 발생한 CO2를 활용해 그린올, 메탄올,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 등을 생산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증 부지를 확보하고 실증 플랜트 구축을 위한 인허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40셀 스택 제작을 완료하고 성능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80셀 스택 시스템 설계도 진행하였고 CCUS 기술 특허분석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증 플랜트 구축 공사를 추진하고 CO2 원료와 플랜트 핵심 장비인 80셀 스택의 개발 활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신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고 CCUS 기술 선도와 함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증액 사유와 그간 보급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비 증액 사유는 마을 내 지원액이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을 보급 수가 2개 증가함에 따라 총 8억 원을 증액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급 실적 및 향후 계획은 현재까지 총 121개 마을에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어촌 마을의 난방비 절감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매년 LPG 저장탱크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용자 계정 전입금 감액 사유 및 장기적인 기금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이 어려워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만, 2025년은 기초성된 기금 재원을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과 시군비 분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원 마련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정 기금 운용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펀드투자 회수금 재원을 펀드에 재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 계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24년 펀드 회수금은 11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80억 원을 출자해서 총 5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서 도내 주력산업 및 초기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펀드 조성 방법을 보다 더 다각적으로 만들어서 당초 '31년까지의 목표를 '28년까지 펀드 1조 원 조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금 설치 후 보령·당진·서천·태안의 15개 사업에 약 44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수소 등으로의 대체 에너지 발굴 사업화 지원 등 6건과 에너지 자립모델 마을 조성 2개소, 창업 및 직업 전환 산학연 협업공간 구축 및 교육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전환 지원과 탈석탄에 따른 신산업 및 대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을 보다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십시오.

○ **지민규 위원** 우선 정말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5년도 자료 39페이지 보시면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6년짜리 계획인데 2020년부터 '24년까지 산출기초만 부탁드립니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39페이지요.

2020년부터 '24년까지 산출기초만 부탁드립니다요, 그다음 44페이지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76억짜리, 여기 인력이 지금 사무 및 연구 인력 61명과 학생 47명 해서 총 108명이거든요.

108명 인력 명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108명이 참여하시는데 정확히 LG바이오랑 순천향대학교라고 나와있는데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랑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 84페이지에 강사로 1회당 128만 5000원에 강의 과정 및 자료 개발로 해서 200만 원 해서 강사 1회당 328만 원씩 개발자 등 양성 교육 해서 잡혀있거든요.

그다음 재료비도 25만 원씩 20명 돼 있는데 이걸 세부 산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증액 사유 있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추경이요, 본예산이요?

○ **김도훈 위원** 예, '25년도 예산안에 보면 거기에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21년도 13개, '22년도 16개, '23년도 13개, '24년도 17개로 돼 있는데 지역이 어디인가랑 그다음에 선별 기준 있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한데, 중규모 LPG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소형저장탱크 보급…….

○ **산업경제실장 안 호** LPG 소형저장탱크요?

'22년부터 금년까지 선정된 마을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선정기준이랑?

○ **김도훈 위원** 예.

○ **위원장 안종혁** 구형서 위원님.

○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고도화 R&D 사업인데 중추기술 R&D 1건, 기업지원 R&D 8건 이렇게 있어요.

꼭지별로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해서 다양하게 있어요.

탄소중립형도 있고 소기업형도 있고 한데요, 그 내용에서 스마트공장 기구축 현황 자료 그리고 지원 형태 및 기존 구축 향후 계획 그리고 기업 신청 현황 및 선정 기준 또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진행 현황 하고요, 규제자유특구 2건, 글로벌혁신특구 1건 추진 현황 자료 그리고 친환경선박 전환 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돼서 어떠한 기술을 적용해서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경제과에서 에너지정책 홍보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사 지원 현황 하고 홍보 자료 및 선정기준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도내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업 현황에 기업 규모나 매출 현황들도 포함할 수 있으면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사업에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떤 사업이요?

○ **구형서 위원** 수소.

보령·당진·서산에 진행하는 거잖아요.

각 단위별 보령·당진·서산에서 어떤 수소를 생산해서 하는지 그 사업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담아서 주시고,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서 충남 이차전지 기업 현황 자료 주시고요,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정의로운전환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정의로운전환기금 연도별 사용 상세 내역 주시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센터 있죠?

에너지센터 운영 해서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4억 2300이고 탄

소중립 거버넌스 구축이 3억 7000이예요.
이거 항목별로 상세 계획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자료 가능하시
겠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솔직히 말씀드
리면 기업의 세부 명칭 내역들 이런 것
들은 오늘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구형서 위원** 가능한 것만 주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가령 인건비 지
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
분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
을…… 왜냐하면 저희도 갖고 있는 자료
가 아니어서…….

○ **지민규 위원** 그게 '23년도부터 하던
사업이라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한번 확인은 해
보겠는데, 세부 기업들 명단이나 특정 사
람 명단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
니어서.

○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실장님?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저희도 갖고
있지 않아서…….

○ **위원장 안종혁** 그리고 또 다른 데다
가 요청해야 될 자료하고, 지금 두 가지
잖아요?

정회 후에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한 범위를
해서 요청되는 자료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외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식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참고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
다.

○ **위원장 안종혁** 정회 바로 할 거니까
요, 정회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
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7시02분 속개)

○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박정식 위원** 실장님,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있잖아요.

추경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
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의 지원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졌어
요.

자부담이 있어서…….

○ **박정식 위원**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
감액될 예정이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감액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군에서 수요가 있
을 거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국비 공모를 받으려면 지원 요건이 있거
든요.

화재보험 가입률이 40% 이상이어야
되고 자부담을 10%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건에 맞는 시군 시장들이 현재는 없어
서 신청을 안 해서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감액해야 될 상황입니다.

○ **박정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39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도 같은 사업일 수 있고 415페이지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 중 노후 전선 교체 사업이 혹시 들어가 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도 해 놓았고, 조금 전에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거고.

○ **박정식 위원** 이게 혹시 '2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냐고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들어가 있지요?

○ **박정식 위원** 그래서 굳이 추경예산은…….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 **박정식 위원**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박정식 위원** 그래서 이 2개 사업에 혹시 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원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꼭지 중의 하나인데 시군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본예산에는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박정식 위원** 그러면 이걸 도에서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꿈 만들어야 되는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1개소라고 하면, 점포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40개 이상이 화재 공제회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10% 해야 되고.

그 요건을 맞추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화재 공제회에 많이 가입을 하라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 **박정식 위원** 화재보험에 안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굉장히 많습니다.

○ **박정식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추경이라도 세워지면 내년에…….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년에 지금 하겠다고 나온 데가 수요를 받아보니까.

○ **박정식 위원** 한 군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한 군데 정도.

그것도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한 군데 말고 더 추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계속 같은 말씀인데- 지원 요건이 충족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충남 테크노파크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 건인데요, 이게 TP가 보유한 고가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장비가 25% 수준, 이거 '25년도 예산 얼마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TP 사업 중에 대부분 장비 구축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기구축된 장비들의 활용률을 말씀…….

○ **박정식 위원** 총사업비가 17억이죠? 연구장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7억

8100만 원 중 한 3500만 원 정도의 장비가 그냥 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추후 어떤 계획이 있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사실 위원회에서 지난번 회기 때도 몇 번 지적을 계속 주셔서 제가 TP에 장비 활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자체 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고가의 장비들이 놓고 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박정식 위원** 내년도 활용 계획이 정확하게 우리 산업경제실에 전달이 되면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박정식 위원** 아니, 사용하지도 않는데 뭘 필요해요, 필요 없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까 25%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75%는 활용되고 있는 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정식 위원** 지금 보면 회전변형피로 시험기 활용 제로, 제로된 장비들이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실장님, 혹시 이거 뭐 뭐 뭐가 사용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장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잘 못 했거든요, 위원님.

지금 TP에서 와 있으니까 구상하고 있는 방법을…….

○**박정식 위원** TP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장비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서 TP에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충남테크노파크 경영전략기획실장 김완입니다.

○**박정식 위원** 활용하지 않는 장비 개수랑 장비명 혹시 아세요?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지금 활용되지 않은 장비들은 센터별로 장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장비의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행정 사무감사 때 제출드렸던 장비들 중에 지금 활용이 되지 않는 장비들이 센터에 폐기되거나 아니면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장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도내 활용률이 떨어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활용률이 0으로 있는 장비들 중에는 내구 연한이 다 돼서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장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용성이 미흡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회전변형피로시험기 1억 8000만 원 한 번도 사용 안 했고, 금속 판재 충격시험기 2억 9000만 원 한 번도 사용 안 했고, CNC 초정밀 성형 연삭기 6억 7000만 원 한 번도 사용 안 했고, 전용 금속 3D 프린터기 5억 2000만 원 한 번도 사용 안 했고, 초순수 제조 및 공급 장치 1억 3000만 원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전체적으로 장비 도입 시기가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들어왔던 장비들 같은 경우 활용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장비들은 불용 처리를 하거나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장비들 중에는 '24년도에 구축이 되는 장비들이나 '23년도에 구축된 장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센터별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박정식 위원** 활용 계획서를 산업경제실로 며칠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지금 1차적인 활용 계획서는 지난주에 각 센터로부터 받았는데, 오늘 아침 업무 보고 원장님 회의 때 센터별로 다 - 전체적인 내용 중에 -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을 하라고 원장님이 지시를 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장비 활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식 위원** 이 장비를 쓰지 않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해요?

사용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장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장비를 100% 활용을 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출자·연구 기관, 국가연구개발 장비의 활용률을 보면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활용률이 떨어지는 장비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률을 높일 예정이고요, 지금 장비 활용과 관련해서는 - 전체 재단의 활용 장비는 - 작년 기준으로는 47.2%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60%까지 활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정식 위원** 그거 산업경제실에 활용 계획안 제출하면 우리 본예산 예결위 예산 심의 때 제출할 수 있죠?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기간이…….

○ **박정식 위원**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제출할 수 있어요?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최대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안 자체가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정식 위원** 충남지식산업센터 플랫폼 이용률도 TP 거죠?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예, CRiDaP(Chungnam Regional industry Data Platform)도 저희 TP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산업정책 분석과 관련돼 있는 성과 데이터들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렸던 것처럼 올담과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올담이나 저희 CRiDaP을 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올담에서 갖지 못한 데이터가 결국에는 뭐냐 하면 기업 데이터입니다.

기업 데이터는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한 십몇 년 동안 모아온 저희 3대 주력 산업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산업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릴 때는 뭐냐 하면 올담과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통계청 자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CRiDaP 운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운용성을 더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정식 위원** 충남 지역 산업 데이터 플랫폼 이용자 전년 대비 90% 감소를 했고 304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23년도, '24년도 예산보다 '25년도 예산이 한 1000만 원가량 더 증감돼 있어요.

그렇지요?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예, 원래는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었고요, 행정 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받았던 사항이 뭐냐 하면 “외부의 활용성을 좀 더 강화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는 할 수 없지만 통계와 관련돼 있는 부분 홍보라든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홍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500만 원~2500만 원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박정식 위원** 방안에 대한 계획서도 갖고 있어요, 지금 혹시?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계획서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

○ **박정식 위원** 오늘 예산 심의 하는 날인데 구체적이지 않고,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대부분 두세 페이지 정도의 운용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 **박정식 위원** 지금 네이버에도 검색되지도 않고 홈페이지에 링크도 없어서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볼 때는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플랫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

검토를 하지 않으면 '25년도 예산 없어요.

그것도 계획서 마련해서 예산 심의 때까지 제출할 수 있죠?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예,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식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무슨 근거로 예산을 주겠어요,

맨날 이용률이 저조하고 장비는 쓰지도 않는데.

방안이 현재 없는 거죠?

있어요?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방안이 없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대로…….

○ **박정식 위원** 있으면 제출하면 되지 최대한 한다고 그래요.

제출을 하면 되잖아요.

○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알겠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계수조정이 언제인지 아시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지금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도 법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정이 안 되고, 이용률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는 심의할 때 그 기간 안에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니까 안 되시는 거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지 마시고 추경에 담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는 조정을 좀 하십시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장현 위원** 11월 월간 충남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깐요, 전반적인 고용 실업률도 낮아졌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좋은 수치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수치입니다.

전망과 체감이 마이너스입니다.

확인하셨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안장현 위원** 정말 경기종합지수, 경기심리지수가 높는데 소상공인 전통시장 기업경기실사지수(BSI)만 매우 낮고 소비자심리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정말 내수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실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장님이라면 아실 것 같아서 구두로 질의를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예를 들면 내년에 지역상품권 예산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은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고요.

○ **안장현 위원** 잔액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요?

○ **안장현 위원** 예, 올해 집행한 거에 잔액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시군에 교부를 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안장현 위원** 이게 내년 설에도 많이 발행되고 유통이 되어야 그나마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점가에서 기본이 좀 될 텐데 우려가 큼니다.

만약에 정말 시군에도 잔액 사업비가 없어서, 올해 초에도 잔액 사업비를 계속 활용을 했었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안장현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우선 부여 같은 데들은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 **안장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에서도 지방비 매칭을 일정 정도 안 해 주면 시군의 재원만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준비를 나머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들은 우리가 수치로 확인한 -소상공인 데이터로 확인한 거에 대한- 예산은 더 증액이 됩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내년의 경우 도비는 증액을 했고요.

그런데 국비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액은 낮아졌지만, 저희들이 도비 부분은 증액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폐업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했고요, 그다음에…….

○ **안장현 위원** 일부 편성 되는 거여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데이터도 별로 지원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같이 가지 않으면 창업만 하고 일정 정도 성장하지 못해 주저앉게 되는 게 있어서 우리 도의 특별한 스케일업 정책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제가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을 좀 늘렸고요…….

○ **안장현 위원** 거기는 사실 스케일업은 아니죠.

초기 창업 지원 중심 아닙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스케일업까지 가도록 시스템이 돼 있지요.

○ **안장현 위원** 돼 있는데 전 단계 1, 2 단계이지 3, 4단계에 대한 지원은 크지

않은 거여서,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 129 페이지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이런 연구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니까 덩어리가 그래도 억 단위가 될 정도의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설계할 때, 지방비로 각종 설계를 할 때 덩어리 있게 스케일업이 가능한 사업의 유형을 우리 자체라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정도 창업하고 일정 정도 단계가 됐는데 그걸 투자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R&D 기반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에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일정 정도 사업비 형태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남에서 100원 임대료 하는 기업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산과 천안에 보면 공장형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가 민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창업하는 창업 원이나 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 생산할 공장부지 몇백 평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간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협약과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 아니면 실제 스케일업할 과정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지원책으로 손에 잡힐 수 있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도가 그런 사업을 하나로 -한 표로- 안 묶어놔서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도 우리 도 자체나 시군으로 해서 6개 정도가 있고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도 사실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거

고 강소연구특구도 마찬가지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안장현 위원** 그거는 정해진 사업 유형에 딱 맞은 거고, 아주 일반적인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생산 용지,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런 100원 오피스 제공 형태의 것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고민은 해 보는데, 글썄요 그게……

○**안장현 위원** 경남 정도가 한다면 충남이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 유형을 잘 개발하시고 어떻게 가능할지를 향후에 내년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R&D 집적지구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 540만 원이라는데 아직까지는 전문가 자문을 하고 하는데 실제 R&D 집적지구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기를 -R&D 집적지구를- 어떻게 진짜 실제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 형태로는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대표적인 사업이 강소연구특구도 있고 컨벤션센터도 있고…….

○**안장현 위원** 그거를 연결하는,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고 조성이 다 됐을 경우에 그거를 교통과 인접성을 높이고 연계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은…….

○**산업경제실장 안 호** 보완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이번에도 강소연구특구는 3km² 인가 확대도 하고 있고요, 키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안장현 위원** 새로운 게 없어서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설치가 안된다면 컨벤션 해 놓고 장사 안 된다고 나중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을 텐데 우리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된 바는 없습니다.

고민을 지금이라도 안 하면 나중에 “컨벤션 이거 뭐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반도체팀이 생겼는데 시제품 제작 30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업비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런데 시작하니만큼 시작에 의미를 두되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현 위원** 스파 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아산에 산업지원센터의 사업인데 내년에 본격적인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늦지 않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현 위원** 도시가스 소외 읍면 지역 배관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 운산면, 논산시 강경읍 이렇게 큰 데 위주로 하는데요, 이것 또한 대상 지역이 우선순위가 다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 외에 추가로 한 데이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현 위원**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곳에만 사업비를 별도로 크게 잡아서 하는

거여서 이 또한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제적인 가스회사의 가연성, 주민 수에 따라 근거하고 있겠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재원이 추가로 마련이 돼야 저희 도비를 붙여서 가는 거여서 시군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금방 위원님이 예를 들어주신 데는 시군에서 추가로 더 출연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안장현 위원** 그리고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약 5억 정도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실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한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 관련해서, ESG 관련해서 사업비가 조금씩 늘고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던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실효성이라는 것은 수치로 하는 게 아니고 ESG 경영은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서…….

○**안장현 위원** 교육 사업이 계속되면 수요자 찾는 데만 힘들어요.

ESG 교육 여러 군데에서 유료도 하고 무료도 하고요, 우리가 교육비에 담으면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요에 기반한 지가…… 사실 저도 여러 얘기를 들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있겠는데,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할 때 ESG 경영 실적이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는…….

○**안장현 위원** 그럼요.

그거 없으면 수출도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특히 새로운 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의 취임 이후에 잡음이 많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안장현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 관련해서 순수 도비가 5억 7000 정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거를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도 할 수 있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안장현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은 것 같다는 제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안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오면 또 추가 질의 하겠고요, 우선 최근에 우리 지역에 - 존경하는 안장현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이야기 해 주셨는데 -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수치로 보면서도 충격을 받지만 거리를 다니다 보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문 닫고 폐업하는 데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가 확연히 보여질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도도 소상공에 대한 지원을 하죠.

목록을 쭉 보니까 희망재기, 육성지원, 디지털전환지원, 특화지원 등등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하고 운영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역량 강화 사업하고 사회보험

료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위원회 등등 열어서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지원되는 내역들을 쭉 보니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여기에서 펼치는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건 뭘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펼치는 정책 안에서 여기 중 뭐라도 혜택을 받으면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인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들게 돼요.

뭔가 직접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잘 영업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 구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거든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정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죠.

시장경제를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나 펼친다고 해서 다 나아질 수 없는데, 실장님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너무 관성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안장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사실 당장 급한 거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분들이 활력을 다시 되찾는 게 제일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신규 사업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그리고 몇 가지 생각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좀 많이 했는데…….

○ **구형서 위원** 이번에 안 보여요, 사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소상공인 희망재기 사업은 우리 도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도비 8억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15억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의 내용인데 국비랑 연계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내년에는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사실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진흥원 이런 쪽에 하는 사업도 있고 TP 쪽에서도 소상공인, 소기업들 판로 개척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소상공인에 맞춰서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다 말씀 좋은데, 소상공인들 판로 개척, 되게 뭐라 그럴까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골목상권 이런 데에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은 판로 개척 이게 당장 자기들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손님이 없고 물가도 오르고 배달앱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배달 중심으로 전환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수료 내는 것 때문에 수익률 떨어지고 당장 영업을 해도, 안 하면 임대료가 까지고 이러면서 마이너스지만 하면 인건비 쓰고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폐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배달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두 개의 구조잖아요.

하나는 배달 포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민’이나 이런 쪽에 가는 수수료가 있고 그거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거

고, 그다음에 실제 배달을 하시는 분은 소상공인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비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배민이나 이런 포털 쪽의 수수료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걸 도에서 지원을 해서 -결국은 배민 이런 쪽에 수수료가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 그걸 낮추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구형서 위원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게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공공앱에 대한 부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공앱이 활성화되려면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소비자가 그걸 이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공공영역 안에서 민간 영역의 마케팅 전략을 이길 수 있게끔 계속 인력을 댈서 유지 관리 하고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서울 같은 데, 서울 시장 공공앱 관련된 것 그리고 골목상권에서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될 수 있게끔 한다는 정책이라지 말씀하셨던 재기와 관련된 폐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유사한 정책들은 있죠.

국비에 기반한 것도 있고 자체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단독 정책도 있고 한데, 요즘에 지역별로 보면, 제가 어떤 정책적인 아쉬움을 들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정책이 새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건데, 그래서 타 시도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 본예산에는 비록 담지는 못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하나 드리고, 전통시장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전통시장의 내용을 보면 되게 직접적이네요.

딱딱 꽃히죠.

그냥 현대화 해 주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나쁜 정책이 아니라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심권에 있는 데 다가는 딱딱 꽃히는 정책이 없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심에다가 보기 좋은 건물에 상가가 딱 들어가 있으니깐 왠지 그들이 장사 잘돼 보이고 뭔가 어려움 없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왠지 전통시장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지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되게 공실률도 많아지고…….

○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딱딱 꽃히는 정책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우리 도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시군마다 공용주차장 같은 정책들이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공용주차장 하는 것들이- 원래는 2022년도까지 국비 공모 사업에서 지방이양 돼서 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심권에 있는 공용주차장, 시내권에 있는 공용주차장 만들어 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못 해요.

결국에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안에

서 우리는 일정 부분 풀예산으로 잡고 15개 시군에서 그걸 뿌려주고 나눠주다 보니까 한 꼭지가 너무 예산이 크면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예 못한단 말이네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계속 차일피일 후순위, 3순위, 4순위로 미뤄져서 언제 거기에 공용주차장이 생길지 기약할 수 없는…… 도심권에는 상가 활성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차장이네요.

물론 도시계획할 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보해서 해 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미래 수요까지 다 담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들 당장의 수익 논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잘 안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땅 팔아 먹어야지 돈 되니까.

개발업자들의 논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밀려서 유휴 공간이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데들은 그런 공용주차장 정책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인구 밀집 돼 있고 상가 밀집 돼 있는 데는 그런 정책이 안 가요.

그런데 또 전통시장을 놓고 보면 인구 밀집 지역이라기보다는 유휴 공간이 있는 데는 정책이 가요.

이런 고민들이 소상공인 상권 밀집 지역에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공허해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되게 참담하거든요.

제 지역구 불당동 보면 ‘불당동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되고 살기 좋은 동네니까

다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여기 절반 이상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면요, 다 문닫아 있습니다.

안중혁 위원장님하고도 불당동 가서 로드워킹하면서 현황을 본 적도 있는데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사실.

다 망해 나갔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주차장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장 100면 이상 6개소 진행 중인데 거기에는 전통시장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상점가도 들어가 있거든요.

○ **구형서 위원** 그렇데요, 보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명동 상가고 서산 같은 경우는 번화1로 상가로 돼 있더라고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어떤 데들은 됐다가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 **구형서 위원** 시군에서 매칭을 못 하거나 아니면…….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기도 하고 중심가들은 넓은 공터를 확보하더라도 주차 빌딩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차 빌딩에 대한 반대가 일부 상인들은 찬성하고 일부 상인들은 조망권 그런 것 때문에…….

○ **구형서 위원** 맞아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래서 도나 자치단체의 의지만 가지고 100% 되는 것도 아니고…….

○ **구형서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특정 지역, 특히 도심권, 타워주차장으로 하면 그냥 유희 공간 있는 데다가 공용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물론 돈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2개년, 3개년 계획 정도

수립해서 그쪽 지역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딱 목을 정해서 해야지 큰 틀 안에서 해 보자 그러면 절대 추진이 안 돼요.

공감하시죠?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는 말씀인데 저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구 천안시 얘기를 아까 지엽적으로 얘기 하긴 했지만…… 얘기 안 되면 저 불러주세요.

저라도 가서 도가 얼마만큼 지원한다고 하니까 천안시 매칭할 수 있게끔, 아산시 매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역할을 할게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관점이 다른 말씀이기는 한데,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안 좋은 일이지는 하지만 저희들 내년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50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000억 정도로 늘려서 -어쨌든 저금리니까요- 저금리로 해서 1000억 정도 더 늘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게 경기가 어려워져서 망할 때 다 돼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받고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어쨌든 다 응자 형태인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일 쉬운 방법이긴 직접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게 납기일을 유예해 주고 저리의 자금을 새로 해 주고, 이게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재원 때문에.

내년에는 1000억 정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런 정책을 많이 썼는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코로나 때 저희가 3000억 썼거든요.

○ **구형서 위원** 어쨌든 많이 썼는데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것에서 딱딱 꽂히는 정책을 써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부채로만 남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비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결과론적인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정책 안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좀 이따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실장님, 첨언을 하자면 대안 같은 경우 이번에 유럽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 불당동에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고 큰 거는 뭐냐면, 저는 구형서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 갑자기 생긴 사업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장에다가 맡겨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시장을 저희가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느 한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사실 세금 다 내고 월세 많이 내고 고생고생했는데 폐업은 그쪽이 더 많이 하고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더라고요, 어차피 요즘은 무료 주차가 아니라 유료 주차다 보니까.

보통 우리는 주차장 만들면 상인회에다가 주잖아요.

이러면 전통시장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전통시장이 없는 데에도 주차장이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들은 -민간 자본을 관광이나 조례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방안들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규 위원님.

○ **지민규 위원**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요청드린 자료는 혹시 언제쯤 올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하고 있고요, 저녁식사 하시고 나면 우선 7시까지는…….

○ **지민규 위원** 먼저 된 거라도 있으면 바로바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2024년도 추경 사업설명서에서 17페이지에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인데요, 2년 6개월짜리 다년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24년도, '25년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4년도 사업에도 사무용품 100만 원씩 다섯 번 해서 500만 원어치 사시고 '25년도에도 사무용품을 100만 원씩 다섯 번 해서 500만 원어치를 사시고,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만한 내용일까요?

쪽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그렇게까지 들어갈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 **지민규 위원** 다른 사업들의 비슷한 예산들, 비슷한 인력들, 비슷한 내용들에 비해서 여기만 유난히 사무용품비만 과다하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게 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별도 합동사무실이 천안에 있어요.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23년도 6월부터 했잖아요.

'23년도, '24년도 사무용품 구매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랑 자산취득비 산출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 수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에 산출내역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 **지민규 위원** 예, 그런데 산출 내역이 잘못되어 있어서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 밑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지민규 위원** 다음 '25년도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 388페이지고요, 실장님, 그동안 사업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소상공인지원센터요?

○ **지민규 위원** 예, 사업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죄송한데 세부적인 홍보 내용은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쪽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대신 드려도 될까요?

○ **지민규 위원** 예.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충남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 **지민규 위원** 실장님, 그동안 충남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홍보를 어떻게 해 오셨을까요?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실장이 왔으면 좀 더 설명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사업 홍보는 연초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통합으로 해서 통합설명회를 거치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각 소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 조직, 시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민규 위원** 사업마다 신청자가 많았나요, 지원자들이?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워낙 소상공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 미달이 나거나 부족하지는 않았던 거로 알고 있고요.

○ **지민규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추가 모집 공고가 났죠?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추가 모집 공고 뜬 거는.....

○ **지민규 위원** 미달이 나서 추가 모집 공고를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그런데 저희가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제한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하게 잡은 것들은 미달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후에도 하고 협의하면서, 개선을 해가면서 홍보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민규 위원** 혹시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저희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 **지민규 위원** 보통 공고문의 조회수 혹시 보셨어요?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조회수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 **지민규 위원** 한 15개 찍힙니다.
공고문 내실 때마다 열다섯 분 정도 조회하세요.

오프라인 홍보를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홍보에 비해서 이런 게 너무 약한 것 같아서요, 사실 오프라인이 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 온라인 홍보 제작이 있더라고요.

올해까지는 온라인 쪽은 홍보하셨던 게 혹시 없으실까요?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내년에 온라인 홍보 해서 이천몇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길래 내년이 처음인 건지 아니면 올해도 있었는지 그 부분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온라인 쪽도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사업설명 해 주시는 것도 다 좋은데 소상공인은 타깃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맞춰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 공고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가서 저희도 예산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 더 많이 도와주면 좋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둔포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이쪽을 확인해서 지원 방안 좀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거의 다 해 주고 있거든요.

○ **지민규 위원** 여기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고 운영하던 곳과는 매우 다른 형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 사례라서 현장 방문과 함께 방안 좀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쪽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내년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담당 과장님이, 팀장이 방문해서…….

○ **지민규 위원** 한번 방문 좀 꼭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회기 때마다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방문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언제 개소 예정이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올해 말에 준공되고요, 개소식은 내년 1/4분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민규 위원** 1분기에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지민규 위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내년 말까지 청운대 위탁이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지민규 위원** 이게 추후에 통합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두 군데가 따로따로 운영되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년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 성과를 보고 -통합을 하게 되든지- 통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앞당겨서 사회적경제를 현재 하고 있는 청운대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민규 위원** 사실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된 예산 사업들이 타운이 생기면서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는 유사 사업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위탁 종료 이후 시점의 통합에 대해서 -짧게 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그다음 509쪽에 지역형 플러스 사업입니다.

충남형 도시농민 플러스 사업이 우리 부여군 농업회의소에 진행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4억 3700이고요, 일자리 지원비로 3만 원씩 8500건이 있는데 이걸 뭐죠?

이 8500건이 어떻게 지원되는 걸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게 부여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부여 농업회의소인가 그쪽인 거고 택시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 **지민규 위원** 이게 올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뒤를 돌아보며) 이게 3개년 사업인가?

3개년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 받아서 3개년 사업이고.

○ **지민규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기간이 단년도 사업으로 나와서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몇 페이지?

○ **지민규 위원** 509페이지.

○ **산업경제실장 안 호** 3년 사업 맞습니다.

○ **지민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단년도 사업으로 나왔을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비를 매년 매년 주고 있어서 그래요.

고용부에서 매년 매년 주고 있어서 그럴습니다.

○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비 공고문이나 웹자보나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거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 지원비로 해서 8500건 2억 5500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숙식·교통·간식 등’이라고만 명시돼 있는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용도로 쓰라고 3만 원을 주는 거죠.

○ **지민규 위원** 그러면 8500명한테 이걸 나눠준다는 얘기일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지요.

○ **지민규 위원** 우선은 요구 자료 온 거 검토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25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충남 양자산업 기반 육성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5000만 원짜리?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신규 사업이고 제2회

충남 양자과학기술 육성 포럼 이거 작년에도 했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어디에서 했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여기 도서관에서.
- **위원장 안종혁** 도서관에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그때 예산도 똑같았나요?

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마이크 잠깐만 꺼 주십시오.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작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풀비 2000만 원 갖고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예산 확보가 예산담당 관에서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양자 미래 포럼에 가입을 하면서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올해 '24년입니다.
올해부터 양자 포럼에 저희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업하는 과정에 우리 충남에서 포럼을 올해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순기에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풀비를 사용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 가서 하시는 거예요?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매년 지역에서 했는데요, 일단 저희 지역 내에는 양자 관련된 기관이나 학계 쪽이 없어서 같이 정보 공유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한 번 하면 관련된 기업이나 학계 쪽에서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 수도권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권에서 한번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고민하는 거예요?
산출액에는 임차료가 서울로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500만 원짜리라 커서.
몇 명이나 오세요?
올해 상반기에 몇 명 오셨어요, 1회 때?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한 200명~250명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 **위원장 안종혁**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데 200~250명이 왔지요?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저희가 인원 동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학에 관심 있는 학과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학생들이 온 거죠?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많이 왔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서울에서 하는 거는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양자 포럼이 108개사 회원사가 있어요.

연구기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럼하고 협업을 해서 -인원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했는데요- 서울에서 장소를 임차하다 보니까 한 100~15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못 짰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서울까지 가서 유명하신 분들 강사 모시는 건가요?
그런데 강사로 산출 내역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액수에서 정해진 거라, 일반적인 액수라…….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저희가 포럼에

가입한 이유가 거기에 각계 연구기업이
나 양자 쪽에 저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회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부탁을
해서…….

○ **위원장 안종혁** 코엑스 이런 데서 하
시는 거죠?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실무적으로는
양재 엘타워 정도를 고민하고 있었습니
다.

○ **위원장 안종혁** 거기는 한 200명 들어
가요?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2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지금 양자산업 기반
육성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건 알겠
는데 포럼이 실질적이냐를 생각해야 되
잖아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도 새롭게 출범을 하는 건데 행사
예산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쿼텀코리아
야 이걸 거의 정해진 금액 같아요.

이것도 서울이죠?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올해 일산에서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올해 일산에서 개최했
다고요?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 **위원장 안종혁** 내년도에도 그러면 일
산에서 하겠네요?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장소는 미정이
라고 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장소는 미정이고요, 행
사 포럼 예산에 3000만 원 중, 여기에 저
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러나 궁금해서
여쭙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3000만 원이 걱정하신 거죠, 과장님?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금액은 적더라
도 저희가 포럼하고 협의해서 좀 저명한

분으로 초빙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포럼이 지금 3000만
원이 걱정하냐고 여쭙본 거예요.

○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이건 어느 과입니까?

산업육성과장님!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산업육성과장 윤
덕희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
화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2억이 삭감됐
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저희는 필요성을
강조했었지만 도 재정 여건상 조정이 이
루어졌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전체 사업비 3
억 중 기업지원비는 9000만 원이에요.

해외전시회 총남단체관 해서 500만 원
5건 2500만 원, 이걸 무슨 내용입니까?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금년도 같은 경
우도 미국이나 스페인, 중국…… 아, 내
년도에 해외전시 5건을 계획하고 있습니
다.

미국이나 스페인, 멕시코, 중국, 아랍
에미리트.

○ **위원장 안종혁** 기업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기업지원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나가는 데 예산 지원이
되나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기업 지원을 보
면 저희가 도에서 지원되는 일반적인 부
분은 부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공되고
체류비라든지 항공비는 기업에서…….

○ **위원장 안종혁** 항공비는 기업에서 하
는데 산출액을 보시면 연구 수당 밑에
있는 기업지원비가 맞는 거죠, 9000만 원

되어 있는 거?

해외전시회 총남단체관 500만 원 5건이 해외전시회 다섯 군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5개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 곳에 5개 부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전체 지출 비용을 말씀하시는…….

○ **위원장 안종혁** 500만 원을 5개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렇죠?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 밑에 내려가서 간접비 바로 위에 있는 참여 기관, 수출 지원 전문 기관 전출금 1억은 어디다 전출하는 겁니까?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여기 같은 경우는 나이스디앤비라고 신용정보회사에서 같이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이게 세계화 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거기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신용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그쪽 기업의 신용도를 조회하는 거, 세계적인 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신용 조회 하는 것을…… 몇 건에 상관없이 1억 인가요, 매년 1억 인가요, 아니면 건수가 정해져 있나요, 신용 조회 하는 게?

조회당이에요, 아니면 1년 사용이에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1년 연계약으로 해서 정해지지는 않고요.

○ **위원장 안종혁** 1년 동안에는 얼마를 하더라도 상관없는 조건이다?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투자통상정책관 쪽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총남테크노파크도 별도로 하고 다른 데도 별도로 하는데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500만 원짜리로 5개 회사에 한 거죠?

그렇죠?

2개 하면 돈이 더 드니까 부스 하나짜리겠죠?

그래서 내년 ‘총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는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그 사업들이 사실 TP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투자통상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창조경제도 있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합친다는 게 각 기관에서 사업 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고른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들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별로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예산을 하나로 안 합치더라도 통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제가 체계를 한번…….

○ **위원장 안종혁** 예산을 합쳐놓고 그 기관별로 이게 안 된다고요?

무슨 CES 가는 데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돼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가령 예를 들면 T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과목을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TP에 출연금을 줘서 하는 거고, 투자

통상정책관실은 자기들 사업비로 직접 집행하는 거일 거고, 이렇게 예산 목이 과목이 다 달라서 합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협업해서 하도록 하고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업을 해 볼게요.

예산을 꼭 한 군데로 합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위원장 안종혁** 김관동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하셨던 분이셔서.

그렇죠?

취지는 이해하시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지금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 투자통상정책관에서도 지적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는 건데 -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한 부스로 하고 기업의 역량이라든가 참관단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 없이 그냥 무조건 해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CES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업체 같은 경우 자동차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상장 기업입니다.

부스 하나 준답니다.

두 개 달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사진기를 갖고 가서 즉석 사진 찍는 거라 공간을 차지해서 - 사람들한테 인기는 많은데 - 거기도 2개를 달라고 했어요.

안 된대요, 하나밖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스들을 대학들도 쓰다 보니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해서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방법을 찾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산업경제실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주도하기 위해서 수출 역량을 강화한다면, 윤덕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 출신이시잖아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세팅을 해 줘야 되는데 기업의 규모가 큰 데도 이거, 참관에 의의가 있는 데도 이거, 대학도 이거, 한 관 하나 부스, 하나 부스, 하나 부스..... 브로슈어에 다 똑같이,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적정한가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다들.

그런 검토가 필요하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검토는 하는데요, 기관별로 편성해서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업체들을 선발할 수 있게 자율권을 한번 취보시는데 예산은 달리가더라도 예산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저도 참 송구한데 경험상으로 여기 상임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뭘 안 주면 책임과 권한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말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투자통상정책관실만 저희랑 협업이 되면 다른 데들은 저희 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 데여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통상정책관실도 저희랑 자동차 관련해서 일부 사업은 금년도에도 독일에 갈 때 같이 협업

해서 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 거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 **위원장 안종혁**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자동차 융합부품 빼고, 어찌 됐든 세계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세계화 관련된 예산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만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정회)

(19시12분 속개)

○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행사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경제진흥원이나 TP나 여러 행사들을 나눠서 행사비 예산을 뽑아 봤어요.

뽑았더니 저희가 꼭 회의장을 임차해서 써야지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충남국방산업육성 페이지 63페이지를 보시면 워크숍 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발표하시는 분 240만 원, 토론 100만 원, 인쇄비 1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 중의 대관료·임차료가 480만 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까지 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신사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해서 이것도 예산의 한 35%가 보면 -세미나실을 꼭 50만 원씩 다 주고 빌려서 - 300, 150, 300 이렇게 돼 있는데, 보령이나 아산이나 서산이나 다 대관료는 50만 원씩으로 통일되어 있나 봐요?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것 중에서도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보면 회의장이 천안에서 하시는데 20명이에요.

회의장을 빌리는 데 50만 원씩 4회 200만 원, 그다음 거…… 이것도 충남연구원거네.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에서도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행사장 임차료 이것도 50만 원씩 10회, 500만 원.

40명밖에 안 되는데 회의장을 꼭 저희가 빌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 공공기관에도 회의장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내부 시설을 이용해서 해야 될 회의 성격 같은 것들은 내부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국방산업육성 포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했던 경우고요, 한 번은 서울에서 했었고 한 번은 카덱스가 개최될 때 전시관 내에서 했었고요, 그런 행사들은 전문가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오기 편한 곳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 일반적인 회의들은 임차료 안 잡고 자체 회의 시설들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가의 차이가 조금씩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기준 단가를 통일적으로 적용해서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예산 편성 할 때는 단가를 맞춰서 하려

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실 임차료는 50만 원 정도로 하게 했고 그다음에 회의 운영에 따른 간담회 경비, 식대 이런 것들은 2만 5000원 정도 수준으로 균등하게 맞춰서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집행 과정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781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VIP 오찬은 3만 원, 일반 참석자는 1만 5000원이네요.

VIP는 3만 원짜리 먹어야 되고 일반인들은 1만 5000원짜리로 돼 있는데…… 781페이지요,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외국에서 오셔서 가지고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했을 때 메인 행사장에 있는 것들이랑 수행원분들거는 비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그렇게 할 경우가 있고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메인 행사장에 아무래도 보다 많은 메뉴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밑에 보면 참석자 기념품에도 오타가 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원’ 2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 **김도훈 위원**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오타가 매번 많아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TP예요.

여기 책자에 보면 오타 수정이 안 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오타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번을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실무자들 회의도 했는데 단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해서 나온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방송 중계비가 유튜브 300만 원씩 곱하기 4 해서 1200만 원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방송 중계비 유튜브 해서 300만 원씩 4회 해서 1200만 원 돼 있거든요.

씨앗포럼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도부터 2023년도 6월까지 보면 이렇게 한 번에 300만 원씩 주는 건데 조회수는 많아야 100회가 조금 넘어요.

아마 2022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300만 원씩을 주면서 네 번 하면서 1200만 원을 줘야 되는지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주문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 **김도훈 위원** 조회수를 높이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호응을 하든지 뭔가를 볼 수 있게끔…… 이거 유튜브 방송을 왜 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행사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유튜브 방송을 한 번에 300만 원씩 주면서 할 가

치가 있을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과학기술본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와 계신데.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튜브 구독률, 조회율이 높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일부 탐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단순하게 산술적인 조회수로만 보기에는 조금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회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는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도훈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들인 만큼 투자비를 저희는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한번 펴봐 주실래요?

여기 회의비에 보면 2만 5000원씩 곱하기 36명 33회, 이게 맞아요?

이것도 그렇고 인쇄비 보면 2만 원씩 10부 73회, 이렇게 많이 해요, 73회나요?

그래서 1460만 원, 인쇄비가…….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회의 숫자를 고려해 보면 많은 금액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나

왔지만 인쇄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요구 주신 대로 가급적 적정 단가로 통일시켜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이런 소모품 비용을 제가 쪽 보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사업은 1년 동안 사업을 하세요.

팩스기, 프린터기 임대료는 3개월로 끊어 있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 기간이…….

○ **김도훈 위원** 사업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런데 임차료는 3개월 그런 식으로 나와있는 것들을 제가 보다가 체크를 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01페이지 회의행사비 보면 2만 5000원 24회 곱하기 82회에요.

회의행사비를 하시는데 82회나 하시는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R&D 과제라는 게 혼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회의를 82회나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렇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글썄요, 대규모 회의를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 **김도훈 위원** 2만 5000원씩 곱하기 24명이 82회를 했어요.

맞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한데, 그러면 금년에 이 회의 행사를 몇 회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안 될까요?

(뒤를 돌아보며) TP에서 회의 몇 회나 했나?

(「충북하고 충남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이 있음)

82회씩이나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어서 사업 횟 수는……」 하는 이 있음)

○ **김도훈 위원** 아무리 그래도 365일 중에 82회를 하면 몇 번을 만나신 거예요, 24명씩?

○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실장님 말씀대로, 82회 내년 거잖아요.

올해 몇 회 했는지 보시고, 거기 출장 가셨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했으면 내부에서 했고, 그거 자료 제출하시면 돼요,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아까 제가 복합기 말씀드렸던 것도 찾았는데, 513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513페이지요?

○ **김도훈 위원** 예.

이거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이에요,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사무용품비는 35만 원씩 7개월 245만 원 그다음 복합기는 3개월을 빌리고 사무용품으로는 7개월이고, 이렇게 나뉘지는 이유는 뭐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거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올해 추경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올해도 그것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공모가 좀 늦게 이루어지고, 사업 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은 7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국비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추경과 합쳐서 돼 있는 예산 그대로 그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공모 사업이 확정되고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변경 작업을 해야 될 규모가 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용품비도 하는 데까지 하시면 7개월이면 7개월이고 그다음에 복합기 임차는 그것도 똑같이 7개월로 가야 되는데 사무용품비는 7개월 그다음에 복합기는 3개월…….

○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업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은 산출기초에 따라서 금액을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개월 수가 3개월짜리도 있고 7개월짜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산출기초 하실 때도 다 거꾸로 맞춰야지 되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그거는 아니지만 약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에 유동적으로 한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산출액이나 산출기초를 제가 다 들여다 보면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타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매년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여서 그런 거예요, 오다가 뭐가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요.

○ **김도훈 위원** 그런 답변은 매번 얘기할 때마다 계속 나오기는 했던 것 같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번에는 저희가 더 자세히 본다고 봤는데 그렇게 됐고요, 금방 말씀 주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무용품비는 7개월 하는데 사무 기기는 3개월을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내년 초에 고용부에서 세부 사업비가 확정되면 어차피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덜 살펴보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도훈 위원** 제가 임차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걸 모으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에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공공기관이 되게 많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에 회의장이나 뭐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은 안 하잖아요.

사용은 안 하고 왜 굳이…… 제가 봤을 때 공공기관에 있는 자리도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를 내년에는 적극 활용을 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이거 매년 나오는 얘기라는 김도훈 위원 말씀이 맞고

요, 고도화 이런 거 하시는데, 솔직히 집행부에서는 아낀다고 앞·뒷장까지도 다 쓰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도화하신다고 -수치도 잘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디지털화하고 그러는데 집행부 내에서도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액을 두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개발을 하든지 범용으로 하나 있어야지…… 올담에서는 출장비 같은 거 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언제까지 매년 계속 이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은 맞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라는 게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딘가에 여유분을 남겨놔야 사무관리비 내에서 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회의비가 82회다 그러면 70회를 하고 12회 정도 남는 금액은, 부족한 부분이 사무관리비 내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예.

○ **위원장 안종혁**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실장님, 중소기업들이 되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요.

지금 희망드림 판매전 아시죠?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니면 똑
같아요?

어때요, 이거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금액
을…….

○ 김도훈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똑같지 않나?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희망드림 판매전에 나온
중소기업들 보면 10인 미만 사업자도 되
게 많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5억 미만
인 사업장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60개 그다음 '22년
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23년도에
는 74개 그다음 2024년도에는 105개로
계속 상승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면 본예산 할
때도 이거를 더 얹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아니지만 유관 기관들에서는
이 금액을 계속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관 기관들이 하는 만큼 저희도 지원
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특정 행사에 관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
으로…….

○ 김도훈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희망드림 판매전…….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희망드림 판매
전의 기업을 늘리는 것은 - 독립기념관
에서 할 때 보셨겠지만- 비용을 더 크
게 안 늘리고도…… 부스나 장소가 천막
식으로 돼 있잖아요?

늘리는 거는 현재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경제진흥원뿐
만 아니라 총남TP라든지 이런 데서 판로
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1억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들
은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제가 저번달에 독립기념
관에서 할 때 가 봤어요.

그때 가보니까 위원님 중의 이정우 위
원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
라고요.

이런 거를 도청 직원들도 가서 챙겨보
고 하시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개막식할 때도
가고요, 직원들도 거기 가 있죠.

금년에 저는 못 갔는데 경제기획관님
이 갔고 작년에는 저도 가 있었고, 그날
아마 - 지난번에도 이정우 위원님이 말
씀하셨었는데 - 와 계셨을 동안에 도청
직원들을 만나지 못해서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계속 가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여기 자료 받은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인 미만이나 매
출액 5억 미만 영세·중소기업들이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이분들이 잘돼야 총남도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홍보하는지
방법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힘들
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아마 지금 다
른 데서는 외국으로 판로개척단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그런 게 커져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성공을 해서 그런 데 까지 점프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게 매년 한 번 하는 거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희망드림 판매전은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하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축제 기간에 -단풍나무축제라든가-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하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에 중소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도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잘돼서 앞으로 세계에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받은 거를 보면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자료상에서는 사업 시행 주체는 TP인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총괄은 한자원이네요.

맞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TP의 역할은 뭐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체적으로 TP가 하고 있는데…….

○ **구형서 위원** TP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R&D 사업도 있고 비R&D도 있고, 그런데 R&D는 한자원이 주관하고 있는 거죠, 중추 기술 R&D 부분에 대해서는.

○ **구형서 위원** 비R&D는 TP에서 하는 거고요?

맞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체 사업 구성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자원이 하는 거는 중추 기술 R&D 한 유형에 대해서만 총괄하고 있고요, 다른 R&D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총괄을 TP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 **구형서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받아서 각 과제별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 내용들을 쭉 봤어요.

제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 자료 요구한 거 자료 보고 계시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국가혁신클러스터.

○ **구형서 위원** 예, 그거 보면 이런 다양한 거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뭔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소 산업에 맞춰서…….

○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도내에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업들이 많이 없나 봐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소 관련 기업들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R&D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랑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들을 콘택트하고 오거나이저(organizer)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마 공모 사업으로 했을 건데요, 계획을 할 때 기업들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 **구형서 위원**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한 것은 TP일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바로바로 답하실 수 있는 TP나 산업육성과장님이나 누가…….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산업육성과장 윤덕희입니다.

말씀하신 전담은 KIAT에서 전담을 하고 R&D 부분은 공모나 그런 걸 전체 진행을 합니다.

○ **구형서 위원** 그런데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을 때 주관해서 준비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TP에서 했냐…….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비R&D 쪽은 충남TP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여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의 기술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공모 이후에 선정한 건가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공모 이후에 R&D 부분은 별도로, 그리고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공모로 참여하기 때문에—우리 도내 기업들이 반 이상 참여했지만—외부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제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놓고 보면 중추 기술 R&D에서 한자연, 밑에서부터 쪽 이야기를 해 볼게

요.

에스에이씨는 아산, 신넥엔테크는 대전.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씨엔테크는 당초 충북 청주로 주소지가 돼 있었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런데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우리 충남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으로…….

○ **구형서 위원** 이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전해야죠, 그러면?

약속 이행 하는 건가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부분 연구사라든지 어떤…….

○ **구형서 위원** 다 이전할 수는 없고?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부분, 일부가 이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다음 노루알앤씨?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것은 경기 안양 쪽에.

○ **구형서 위원** 안양이죠?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 **구형서 위원** 이전 하나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예정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예정인데 예정은 이전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렇죠.

이전을 전제로 그 R&D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 **구형서 위원** 넥스플러스는 아산인 것 같고요, 지엠비코리아는 창원이에요.

서산 공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서산입니다.

○ **구형서 위원** 창원이 본사고 서산이 공장이고, 지엠바이코스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지금 거기는 경기 수원에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원인데, 충청남도 스마트팜 맞춤형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화 방안 연구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인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 전동기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런데 스마트팜이 다양하게 어떤 시설 부분, 우리가 보면 그 내용물만 고수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시설 전체를…….

○ **구형서 위원** 맞춤형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화 방안 연구예요.

당연히 스마트팜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쪽에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제가 거기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심사 과정에서, 공모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 **구형서 위원** 수림테크, 안성이죠?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수림테크 안성입니다.

○ **구형서 위원** 대한솔루션 인천이죠?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지금 대한솔루션은 충남 예산.

○ **구형서 위원** 예산이에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지금 공장을 건설 중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동서기공은 시흥?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동서기공은 충남 당진.

○ **구형서 위원** 당진이에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 **구형서 위원** 에어레인은 청주?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청주.

○ **구형서 위원** 물론 도내에 들어온다는 어느 정도 전제 조건 등이 붙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내 기업들 중에서 -물론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술력이 여기에 선정된 데 비해서 떨어진다고 판단했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충실하게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각 기업들이 해당 과업 내용, 과제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들인가에 대한 부분은 재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물론 재평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예요?

홍성·당진·예산·서산·아산·천안을 지구로 정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런데 도내 기업이 없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2700억 이상의 R&D가 통과됐음에도 우리 지역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니 R&D 참여 경험도 일천하고, 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역량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사전에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쪽 이야기해서 문제 제기라기보다 문제 인식을 갖자고 하는 거에 사전에 저와 유사한 생각들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업 관련해서?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이 사업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걸 많이 느끼지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가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양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의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매번 타 지역에 끌려다니고, 이 사람들은 사실 이쪽에다 공장 하나 옮기는 건 그냥 왼쪽 다리 하나 여기다 살짝 걸쳐놓는 거지 그들이 여기에 전력투구 하겠어요, 본사는 다른 데 있고 인프라는 다 다른 데다 갖추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24년도 2차 추경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삭감이라기보다? 맞죠?

감액이 좀 많이 됐죠?

11억 32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전체 그 정도, 도비 기준에서?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 **구형서 위원** 국비도 2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 **구형서 위원** 그래서 일단 '24년 2차 예산을 보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연차별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이게 요…….

○ **구형서 위원** 74억 정도 계속 지연이 되는 건데, 말씀 먼저 들으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24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됐다고 치면, 그러면 보통 내년에 보전해 줄게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저는 '25년도 본예산 자료를 봐서, 거기에 보면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이 나와 있어요.

'24년도에 감액된 만큼 추가적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감액된 것이 나중에 보전하지 않고 없으니까 딱 그렇게 끊는 건지, 주려고 한 만큼의 약속을 해서 차후에라도 주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1차적으로 여쭙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보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비…….

○ **구형서 위원** 이런 경우가 되면 사실은, 그래서 '24년도에 예산 편성 된 내역 중에서 얼마만큼 감액됐나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런 내역들을 봤는데 다이어트가 됐단 말이죠.

각종 수당이나 회의나 여러 가지 해서 감액이 됐어요.

다이어트가 충분히 됐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기준 해서 21억, 도비 기준 해서 11억 3000 감액이 된 만큼 줄여가지고 변경해서 편성을 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런데 '25년도 예산에서는, 물론 내용은 조금씩 변동이 있죠, 해마다 똑같은 내용들을 하는 게 아니라 '25년도에는 그 예산안에서 다른 내용들을 계획 수립 하니까.

내용들이 있는 걸 봤는데 정부에서 이

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거를 감액해서 나중에 보전이 안 된다는 의사결정을 했다고 치면 저는 '25년도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년의 국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교부가…….

○**구형서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건가.

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보통 소통 과정에서 “미안하지만 원래는 74억 전체를 해마다 도비 포함해서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거나 그런 소통을 해서 계획을 수정하거든요.

그런 단계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소통을 하셨냐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소통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금년에 준 부분은 내년에 보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그렇게 하면서 비율도 많이 바뀌었어요.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7 대 3 되면서 비율도 바뀌었는데 대신 내년 이후에 내려오는 사업비들은 약속을 꼭 지키게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거 대단한 사업이죠.

어느 정도 사업 규모도 있고요, 338억 짜리 사업이니깐 적은 사업이겠어요?

뭔가 제대로 성과도 내고, 물론 성과를 내기 위한 기업들 선정부터 아쉬움을 제가 이야기드리기는 했지만, 성과도 내고 해야 되는데 반쪽짜리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하니까 그만큼 다이어트 한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면 계속 줄여서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번에 감액한 게 지금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

○**구형서 위원** 저는 사실 '24년도 이 내용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감액되어 있는 내용 보니까 원래는 투자 유치 지원 해서 5000만 원씩 다섯 번 해서 2억 5000짜리 예산 편성 했는데 투자 유치 지원이 2000만 원으로 해서 여덟 번 이렇게 좀…….

그러면 원래 투자 유치를 5000만 원씩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2000만 원씩…….

아, 2000만 원으로 되는 건가, 이게 말이 될까, 5000으로 계획했는데 2000으로 되는 건가, 그러면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거에 그 정도 예산 규모가 안 되더라도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는 말씀입니다.

○**구형서 위원** 저는 이게 사실 국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맨 처음 하게 될 때는 -사업 명칭이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이 수소 관련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R&D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총남에 집적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3년부터 아마 했을 거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춰서 이쪽을 너무 강조했는데 집행 방법을 계획하는 예산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이었

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내년 추경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조정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부여해 주시면, 다른 데로 쓰는 건 아니고 가령 수출 지원이다 이런 거면, 그쪽에 맞춰서 쓰는 돈이니까 혹시 단가가 달라지고, 사실 단가를 맞추기가 되게…… 내년 상황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총액 범위 내에서 기업들한테 갈 수 있게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저는 그렇게 알겠고, 에너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재정 사업 평가 미흡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아까 그 답변서를 봤는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 **구형서 위원** 신산업 기획하고 신산업 정책.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하나로 합쳐서 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포럼 행사가 의미 없이 일회성 행사 아니냐 그래서 미흡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봐서는 사업을 합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단순한 행사는 아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 **구형서 위원** 평가를 누가 했는데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게 아마 기초실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평가단으로 구성이 됐을 텐데 그 평가단을 제가 폼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좀…….

○ **구형서 위원** 그게 폼하하는 거죠,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평가했다고 하면.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하여간 저희들이 좀 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잘 설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평가를 받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에너지센터가 주로 하는 원, 투, 쓰리가 뭐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에너지센터요?

○ **구형서 위원** 예.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저희가 탄소중립을 했으니까 에너지 전환 하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하는 게.

○ **구형서 위원**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게 다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조례 23조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그 조례를 보면 에너지 전환 인력 양성, 에너지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및 신재생 보급 촉진 또 도민 이해를 공감하는 홍보 사업 및 거버넌스 사업 등이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자료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는데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에 1억 8000만 원 에너지 전환 교육 홍보 내용 있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구형서 위원** 추진 방법이 비영리 시민 단체에 위탁·공모하여 추진이라고 쓰여 있어요.

비영리 시민 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환경단체나…….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환경단체와

기후환경, 에너지 전환 연대, 지속 기업 까지 포함 거버넌스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각 분야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나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소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구형서 위원** 예.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산은 TP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 정산 금액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홍보 콘텐츠 개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캠페인도 하시고요, 똑같이 했다면?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그러니까 홍보 콘텐츠 같은…….

○ **구형서 위원** 이거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할 때 홍보 영상도 만들고요, 기타 홍보 같은 것은 에너지 대전, 대구에서 하는 태양광 콘퍼런스에 홍보 부스 만들어서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대구 콘퍼런스 가서…….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대구 태양광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

○ **구형서 위원** 이 교육 홍보 하는 대상이 누구 거예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거버넌스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 특히 태양광을 했을 때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풍력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 이익을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러면 이 홍보 콘텐츠 개발한 것도 있겠네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콘텐츠는 거버넌스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든지 초청해서, 제가 한 두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저도 패널로 참석했는데 그때그때 맞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 **구형서 위원** 정보 공유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홍보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세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8000?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에너지센터가 집행을 했는데요,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일단 세부 내역하고 결과물이 파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게 있테니까 그거 주시고요, 또 하나, 미래에너지 리더 육성, 절전노트 퀴즈대회를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선정해서 하는 40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올해 했나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했고요, 여기…….

○ **구형서 위원** 몇 개 했어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기관, 기업…….

○ **구형서 위원** 이건 학교라고 쓰여 있어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어린 학생까지 포함해서, 주로 어린 학생이 대상에 많이 됩니다.

절전노트 오면 나름대로 평가해서 지사님 상, 교육감 상…….

○ **구형서 위원** 다시 여쭙게요.
추진 대상이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돼 있고 추진 방법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로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초등학교 몇 개 했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초등학교를 선정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상은 초등학생들을 주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아니, 절전노트하고 퀴즈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하는 거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쓰여 있는 대로 여쭙본 거예요.

대상에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선정.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시상식만 가봐서 아는데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수상은 초등학생 개인으로 주고 있고 몇 개 학교가 참여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지금 바로 확인 안 되시죠?

일단은 다른 분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거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 조금 이따가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수행 기관이 어디예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수행 기관은 TP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결과보고서 안 나왔어요, 아직?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시상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사업 끝난 지 가요.

○ **위원장 안종혁** 12월 되면 결과 보고가 거의 마무리될 텐데 TP에서는.

TP 일정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TP에 이거 한번 찾아보면 지금 구형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들 금방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래야 오늘 마무리 지어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위원장 안종혁**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민규 위원** 실장님,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 언제 시작했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작년에 했을 것 같은데요, (뒤를 돌아보며) 인공지능 실증랩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선행 사업이 작년에 끝났고요, 후속으로 실증랩이 구축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민규 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이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지민규 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몇 월부터 시행했죠?

이거 지금 디테일한 자료 혹시 있나요?

84페이지입니다.

혹시 지금 충남연구원 분 계세요?

이거 혹시 담당하시는 분?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과학기술본부장.

○ **지민규 위원** 본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실장님, 4월 이전에 이거 2022년

도부터 했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선행 사업이 있었습니다.

○ **지민규 위원** 선행 사업에 관해서 자료 디테일하게 싹 다 주세요.

그동안 하신 거 강의 하나하나까지.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과학기술본부에서…….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 **지민규 위원** 본부장님,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올해 4월부터 추경 예산을 통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 **지민규 위원** 이전에는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그전에는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시용합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총 72억짜리 2022년 5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실증랩 과제를 통해서 수행된 산출물로 만들어진 이 실증랩을 별도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7800만 원 받아서 올해 4월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시용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실증 사업 이후에 뭔가 계속하는 게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혹은 이러한 실증 사업들이 있을 때 이 기업과 계속 연계해서 항상 같이 가나요?

제가 몰라서 여쭙보는 거예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단은 실증랩을 운영하게 된 거는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시용합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5년간 운용을 하게끔 돼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올해는 첫해가 됨으로써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시용합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설루션 공급 기업들과 그다음에 수요 기업 해서 이 기업들과 추가적인 업체들이 합류해서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올해 운영을 해 왔습니다.

○ **지민규 위원** 이거 혹시 내년도 예산에서 개발자 등 양성 교육과 기업 경영자 등 교육으로 해서 지금 인공지능 교육 운영비 2900 잡혀 있잖아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 **지민규 위원** 이거 혹시 계획서 좀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책정하신 데는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가 돼 있을 거잖아요.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단 현재 거기까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돼 있고, 현재 제출해 드린 출연금 산출 근거에는 대략 어떠한 급에 해당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건지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문의를 주셨던 재료비 세부 내역에 대한 것들은 지금 자료로 제공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일단 '24년도 거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해서 강의하셨던 강사가 누구셨는지, 강의를 어디서 몇 시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회의비로 해서도 지금 5명 8회 잡혀 있잖아요, 실증랩 운영으로 해서.

이것도 어디서 회의하셨고, 누구랑 하셨는지 회의비 지금 내역이랑 다 자료 주시고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올

해 거요?

○ **지민규 위원** 예, '24년도 거.

'24년도 4월부터 진행하셨다고 하니 까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 **지민규 위원** 자, 질의를 이어갈게요.

저희가 인공지능 실증랩을 '24년도 4월부터 실행을 하신 거죠?

그렇죠?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사업비의 구성 자체는 4월부터 12월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천안에 있는 실증랩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반기에는 거의 사실은 같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고요.

○ **지민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이런 거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회의라든지 뭐든, 제가 지금 '24년도 예산안이 없어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실증랩이 구축돼 있어서, 장비는 구축이 돼 있던 상태였잖아요?

○ **지민규 위원** 예.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충남연구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는 계속 했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4월 추경에 편성한 거죠.

이 실증랩이 4월부터 운영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 끝낸 선행 사업으로 선행 사업이 구축돼 있었고 추경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과학기술본부의 자체 경비로 운영을 했던 거죠.

○ **지민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야면 '22년도랑 '23년도에 에프원소프트랑 함께 과제 수행하셨죠?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에프원소프트요?

○ **지민규 위원** 예.

주식회사 에프원소프트랑 같이 하셨죠?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부 자료로만 지금 봤던 부분들이라…….

○ **지민규 위원** 당시에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시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에서 AI 기반 컨테이너 화물 적재 최적 공정화 설루션 개발 공급 기업으로의 에프원소프트가 같이 들어갔고요, 당시에 에프원소프트 시융합본부 상무님께서 같이 하셨는데 '23년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유 연구원님과 권 연구원님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6박 8일 다녀오셨었어요.

그런데 이 상무님께서 갑자기 '24년도 5월 28일 날 배방 요진 와이시티에 브레인웍스라는 회사를…… 아, 맨 처음 대구에 5월 28일 날 브레인웍스라는 본사를 차리시고 충남지사를 같은 날 5월 28일 날 아산에 설립을 하셨네요, 4월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런 다음부터 충남연구원 워크숍 10월 10일부터 11일 리솜, 강의 다 이 대표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개발자 역량 강화 강의도 다 이분이 하시고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도민 대상 강의도 다 이분이 하시고요, 내년도도 강사를 올해 하신 거랑 똑같이 예산을 8시간 8시간 잡아주셨죠.

맞나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내년도도 역시 4회에 걸쳐서 개발자와 경영자를 포함한 교육이 계획돼 있습니다.

○ **지민규 위원** 저희가 2년 동안 실증 지원사업 중 기업으로 참여했던 회사의 상무님이 어떻게 시기에 딱 맞춰서 충남에다가 갑자기 사무실을 내시고 - 같은 건물 하필 와이시티에 - 같은 건물에 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계속 자꾸 이분

을 초대해서, 이분만 강의비로 해서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이분한테 하루에 109만 원씩 강사비를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교육 재료비로 해서 또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내년도의 사업 계획에…….

○**지민규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요.

올해 '24년도에도 충남연구원 워크숍 그다음 개발자 역량 강화 그다음 도민 대상 강화, 이거 제가 충남연구원 사이트랑 인터넷 기사들 쪽 찾아보니까 있네요.

1일차 파이썬, 자연어 그다음 2일차 AI 음성인식 라즈베리파이 강의하시는데 이거 다 재료비 1000만 원, 회당 500만 원씩 나간 거죠.

그다음 하루에 강사로 109만 원씩.

하필 2년 동안 충남연구원과 함께 했던 모 기업의 상무님께서 우리 연구원 두 분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서 부스 운영도 하시고, 그러고나서 이분이 어떻게 저희 추경 예산이 딱 편성되자마자 5월 28일 날 대구에 본점을 냈과 동시에 충남에 지사를 설립하시고, 이 회사는 올해 5월 28일 날 설립이 됐는데 양쪽에 똑같은 시기에, 대구랑 충남에 같은 시기에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강사비가 참 비싸요.

8시간, 최초 1시간에 초과 7시간 해서 8시간 편성해서 하루에 109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강의 내역 보니까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잡혀 있더라고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인데 강사비 책정을 하신 거고.

제가 잘 몰라서 라즈베리파이 키트가

하나에 15만 원, 이거 한 번 사용하면 그다음에 사용을 못 하나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그 부분에 대한 건 논의를 더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라즈베리파이 키트는 아시다시피 컴퓨터 과학기술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싱글보드 컴퓨터인데 올해는 이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요, 피교육자 개발자들은 개별적으로 노트북을 다 지참하게끔 해서 올해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기서 이 라즈베리파이 키트를 이용해서 개발자들 교육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다가 AI 어시스턴트 개발툴을 일부 OS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서 간단하게 25만 원 정도에 개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과 —이거는 아직 고민을 더 해 봐야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런 쪽의 싱글보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서 현업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해서 올해 도입을 한 건데, 이거를 해가 바뀌면 계속 살거나 말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개발자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육받은 거를 쓸 수 있도록 하게끔 해서 교육 참가 독려 차원에서의 지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고민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거 외에도 사실 기타 교육 보조 재료로 해서 2만 5000원씩 200만 원 편성돼 있죠, 내년 예산에?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강의 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민규 위원** 예, 또 강의 과정 및 자료 개발로 해서 100만 원씩 들어가죠.

그런데 충남연구원에서 AI 관련된 강

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분만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요, 이분이 하필 시기에 맞춰서 똑같이 매번 강의하는 충남 와이몰에 사무실을 내시고요, 저만 이상한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강의가요, 아마 충남지식산업센터에서 할 겁니다.

○ **지민규 위원** 아니요,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 제2캠퍼스에서 했는데요, 와이몰에 있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실증랩 안에서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회의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0명 정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룸 하나와 담소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방이 있기 때문에 20여명 정도의 교육을 시키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드웨어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지민규 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이게 많이 이상해서요, 자료를 싹 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알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이따가 추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다들 식사하시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잠깐 바람도 쐬시고, 오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정회)

(20시38분 속개)

○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페이지 554페이지 보시면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혹시 이게 2024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모범노동자 해외연수에 대한 게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어디에 몇 명이 가셨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년에 간 데요?

(뒤를 돌아보며) 금년에 어디 갔었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두 군데 중에 헛갈려가지고, 유럽 아니면 동남아인데…….

○ **김도훈 위원** 독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독일 갔다 왔습니다.

○ **김도훈 위원** 몇 분 가신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집행 내역 확인을 담당 팀장이 해 드리면 안 될까요?

○ **김도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 **김도훈 위원**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3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2024년도 15명 가셨잖아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23년도는 베트남으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올해는 지사님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독일 가서 배우고 와라”, 석탄화력 폐지 관련

한 문제들이 있어서 15명 의장단 중심으로 배우고 왔습니다.

○ **김도훈 위원** 제가 산출기초 작년 거를 봤더니 거기에 쓰여 있는 거는 30명 간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15명만 가서 제가 지금 여쭙보는 거거든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독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화력발전 3·4호기 노조 간부들 갔다 오는 게 하나가 있었고, 2개를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15명 15명 해서 총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5명이잖아요.

금액은 처음에 2023년도 예산안 보면 그것도 6363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15명이 갔다 와도 6363만 6000원이에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23년도는 베트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개인당 100만 원에 본인부담금 70만 원 해서 갔다 오게 되고요, 독일은 원채 항공료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 **김도훈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는 독일 가는데 30명이 간다고 쓰여 있었고 예산안은 6363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갔다 온 내용을 보면 15명이 갔다 왔는데 6363만 6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가신다고 예산안 냈을 때는 30명으로 6363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보면 15명 갔다 왔는데 똑같이 6363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혹시 이유 아세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24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훈 위원** '24년도에 갔다 와서 예

산액은 똑같이 6363만 6000원이에요.

30명 간다 그랬는데 15명 갔다 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금액은 그대로 쓰신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그게 아마 자부담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서 저희가 주는 돈은 똑같은데 경비는 늘어나야 되니까 자부담이 조금 더 늘었든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으면 금액도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예산은 똑같고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보니까 모범노동자 해외연수 해서 이번에는 100명 정도 있어요.

100명인데 금액은 인당 100만 원 정도로 해서…….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1억 잡혀져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 거죠, 이거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모범조합원 표창 받은 분들 50명은 베트남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국노총에서 별도로 요청했던 게 “25년 이상 장기근속 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가 너무 없다” 그래서 “25년 이상 된 사람 25명을 뽑아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렇게 요청이 돼서 저희가 노동단체에서 요청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명이 가게 됩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독일 연수를 갔다 온 거고요, 이번에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베트남으로 가

게 됩니다.

○ **김도훈 위원** 베트남으로 가는데 이것은 뭐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명칭은 해외연수 부분인데 모범조합원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격려 차원 그다음에 베트남 쪽에 내국 국가들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현지 견학을 통한 노정·노사관계 보는 의미 쪽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게 돼서 해외에 한 번이라도 나가볼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5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그러니까 총 100명인데 매년 50명은 모범근로자 도지사 표창 받은 분들이 가는 거고, 25명은 25년 장기근속 된 분들을 별도로, 2개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 **김도훈 위원** 50명, 25명…….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25명인데 부부동반으로, 그래서 50명.

왜냐하면 25년 이상 하나의 기업에 장기근속 한 사람들에 대해 해외연수 기회 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가는데, 25명 뽑아서 부부동반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100명이 한 번에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따로 나눠서 갑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범표창 받은 50명 따로 그다음에 장기근속자 25명은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올 계획입니다.

○ **김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 양자산업 기반 육성 해서, 70페이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서울에서 하는 거, 서울이 될지 어디가 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얘기가 안 돼가지고 -계획 단계여서 그렇다고 해서- 산출액은 나왔지만 계수조정 할 때까지 대략적으로 어떤 거에 가는지 해서 -밑에 쿼텀 코리아 2025 같은 경우는 알겠는데- 산출 근거 설명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감액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산업이나 해외전시장 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산출 내역 할 때 지금 환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 당장 예측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하실 때 -내년도 행감에서 지적 사항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실제로 거기 가서 실효성이 있을 만한 걸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의견 말씀 드리고요, 36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어느 부서죠?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집행부석에서) 경제정책과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경제정책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사업 수행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이거는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판

매실적 부분에 대해서 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위에 있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진행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금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준 상태인 3억 원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뭘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102개 업체인데 업체별로 2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 **위원장 안종혁**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아닙니다.

플랫폼에다가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안종혁** 어떤 플랫폼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종혁** 이거 예산이…… 감액은 아니고요, 제 의견이 어떠냐면, 지금 위메프 관련해서도 이 예산이 올해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플랫폼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서 한번 잘 검토해서 가지고 -감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면 성과표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데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의견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이대로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플랫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 대금을 20일 이내에 정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준 상태에서…….

○ **위원장 안종혁** 왜냐하면 이거 효과를 받는 곳도 있기는 있지만, 위메프 사건 있고 나서 제가 현장에서 지원사업 했던 몇 기업들을 인터뷰해 봤는데 소상공인이잖아요.

작은 기업은 깜짝깜짝 놀래요.

계속 순탄하게 됐으면 좋은데…… 경기 전망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예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예산 전체를 건들자는 건 아닙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70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지원사업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감액됐네요.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5억 정도 감액

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많이 확보돼가지고 그만큼…… 국비가 9억 원 더 확보됐거든요, 공모 사업으로.

그래서 대체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도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지원에서도 보면 노후된 산업단지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우리가 농공단지 노후 개선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해서 근로자들 환경·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제가 전에 정책협의할 때…… 주변 여건개선 사업에 관한 예산도 있나요?

그거로 같음하신…….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그거는 따로 없고요, 저희는 시설개선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개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시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근로자 환경·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지 예산 중에 천안이 빠졌잖아요.

지금 세 군데가 빠졌죠?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종혁** 예, 거기에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9개 시군 들어가 있죠.

○ **위원장 안종혁** 9개 시군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건가요, 내년에 아예? 대상자가 없나요?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사실 천안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 이상이라 시장·군수가 관리권자로 돼 있어서 대부분 시장·군수가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산단 그런 거는 지금 국비로 천안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천안에 국비로 하고 있다?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 **위원장 안종혁** 50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03페이지에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상태로 맞춰서 예산…….

○ **위원장 안종혁** 수요조사는 누가 대답을 해 주는 겁니까?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시군에서 저희가 받았습시다.

○ **위원장 안종혁** 시군에서 준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정주 여건 개선 때문에 과장님하고 상의 많이 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천안시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전혀 몰라요.

발로 뛰는 저는 아는데 기업들 만나면 전혀 몰라요.

저한테 오히려 피드백을 달래요, 어디에 어떤 장소가 문제가 있는지.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3·4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에.

그러면 통근 버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효과가 좋다고 기업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 줘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군한테 “위원장이 이런 지적이 있었다”라고 말씀 주시고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 때라도 한 번 더 조서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통근 버스 예산을 천안에 2·3·4 산단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 편성했던 부분인데, 통근 버스를 운행하려면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해 놨는데 천안시에서 그거를 허가받지 못해서…….

○ **위원장 안종혁** 천안시가?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 **위원장 안종혁** 그거는 저하고 여기 있는 천안 위원들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런 피드백도 바로 바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협의를 해야 하나까요.

○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67페이지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 사업입니다.

이거 담당 과장님?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여기도 내년 산출기초를 보면 없는 지역이 있네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내년도 사업은 12개 시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3개 시군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12개 시군으로 사업량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탄소중립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빠진 도시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맞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이라 한 가지 에너지원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이 융합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이 미흡한 시군도 있는데 저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독려뿐만이 아니라 가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충청남도가 탄소중립을 100% 실현하려면, 큰 도시가 벌써 빠졌는데, 그렇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위원장 안종혁**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경제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제35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서, 상반기예요.

바이오 생체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수행 기관에 대한 거와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제가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우려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바이오 생체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의 보완 그리고 연차별 예산 및 산출 내용의 적정성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 사항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 심사에 반영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완되지 않으면 추경 심사에 꼭 반영토록 하는 조건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 부분, 금방 말씀하신 바이오 생체 활성화 운영 주체는 회의할 때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이오센터 협의회에서 사업이 끝나면 직접 와서 운영을 할 거다라고 답변을 드렸었던 거로 기억해서…….

○ **위원장 안종혁** “여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하고 이지윤 위원장이 바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실장님이 “그 사업이랑 아까 다른 사업들도 실행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편성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공익법인이고 산업부 100% 출연 법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속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지윤 위원장님이 “보완을 해주시고요, 다음 회기 때는 무조건 이거를 한 번 더 저희 상임위에 꼭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호 실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간 거거든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운영 주체에 관해서는 그거로 그때 대답을 드렸던 거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예산 요구할 때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관련해서.

○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속기록에 “그다음에 사업 주체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공익법인이고 산업부 100% 출연 법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얘기가 없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동의안 이거 원래 부결될 뻔했었어요.

그때 상황 아시죠?

여기에 있는 제가…….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 사업이요?

○ **위원장 안종혁**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막 하고 있었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바이오센터 협의회인가 그 법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 **위원장 안종혁** 그다음에 비슷한 사례로 웰니스스파의 사례가 있다.

그리고 회의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장기적인 사업 완료 후 지속 가능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설명이 돼야 된다.

이게 정회하고 나서 나중에 동의할 때의 속기록이잖아요.

속기록이잖아요?

그 뒤에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하신 거

나 상임위 후반기에, 그다음이 후반기였거든요.

추경 전에 설명 주신 적 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맞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에서 분명히 “조건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이지윤 위원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의 보완 그리고 연차별 예산 및 산출 내역의 적정성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 사항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 심사에 반영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방 특정해서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를 보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끝나고 나서 내막을 물어보셨잖아요?

○ **위원장 안종혁** 예.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왜 여기를 하게 됐냐?”,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부랑 협의를 해서 그 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고 끝나고 나면 운영할 거여서 제가 그 말씀을 비공식으로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업 주체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데…….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보완할 방법이 없는데 그냥 그 상태로 다 이렇게 온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 상반기 때 그렇게 말씀 주신 게 모든 사업들을 다 포괄적으로, 그때 출연 계획들이 되게 많았

잖아요?

○ **위원장 안종혁** 예.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한 거고.

○ **위원장 안종혁**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업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딱 확정이 되었을 때 사업들을 보면 어떤 사업들은 목적하고 다르게 사업 완료한 후에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도비들이 들어가서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하반기에 제가 기경위에 계속 남아 있을 건데 어려울 거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기억나시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인 건 뭐냐 하면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지원센터 이 사업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출연 사업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 주체가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보완을 해라라고 받아들였던 거고, 저는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지원센터에 관해서는 바이오센터 협의회가 하는 걸로 산업부랑 협의회가 돼 있고 그 전담 기구가 시설 기반 구축이 끝나면 조직을 설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산업부랑 얘기가 돼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사업에 특정해서…….

○ **위원장 안종혁** 저야 실장님을 이해 많이 하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장님, 지금 본 예산 심의 전에 -속기록에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거에- 그 전까지 여기에 지적해서 한 내용들을 갖고 사전 협의를

한 게 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
겠죠.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 뒤에 실장님이 그
렇게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짧은 시간에 얘기하시고 배경만 살짝
설명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하고서 갔고
요, 그다음에 저는 부서에서 와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얘기, 인력 구성을
어떻게 보완할 거라는 얘기,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크잖아요, 전체
사업비로 본다면.

실장님도 저한테 주신 건 뭐냐면 그래
도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온 건데 정상참
작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
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저는 한 번 운
영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
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
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잠깐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가지고.

○**위원장 안종혁** 안 계셨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위원장 안종혁** 팀장님?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 바이오정책팀

장 김미옥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 뒤로 저 만나신 적
있어요?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 저 또한 실장
님과 똑같이 이해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국비를 따는 것이 중요하던 시절
이 있었다면 지금은 도비를 매칭하는 게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어놓고 장비는 갖다 뺐는
데 비닐도 안 벗기고, 그냥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더 많은 이자가 나올 수 있
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같이 고민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
냐면, 저도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은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제가
대안 찾고 챙기는 거를 해야 된다는 책
임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 여기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 하는
말은 “저 밥값 하려고 이러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같이 논의하고자 했고, 이
거 관계된 관계자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
었었어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정작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하
신 분들은 공식적인 절차 있기 전까지
시간이 길게 있었는데 왜 단 한 번을 와
서 공식적으로 저랑 얘기를 안 합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렇게 안 하면 이거 저 예산 못 세워줍니
다.”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 제가 이해하
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로 좀 정리해서…….

○ **위원장 안종혁** 이번 주 내가 아니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하시고, 2차적인 보완은 뭐냐면 예결위원들이 마지막으로 보기 전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아직도 과거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대안을 꼭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면 저는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한 번 더 저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게 뭐냐면 저 개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규 위원** 일단 실장님,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숙련기술인 봉사활동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518페이지.

봉사활동 가시는 데 재료비가 1730만원이에요.

재료비 세부 산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518페이지.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2000만 원짜리 봉사활동에 재료비만 그렇게 많이 들면…….

다음에 이걸 사실 건설본부 소관이기 는 한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696페이지에 음봉 일반산단 진입도로로 628지방도인데요, '26년도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사실 지금 다 시군비 잡혀 있어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26년까지로 돼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개통은 계획대로 된다면 '27년에나 되는 거겠죠.

○ **지민규 위원** (웃으며) '27년까지 될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리고 '26년도에 이 예산 어떻게 마련……. 재원 마련 가능하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걸 국비로 온 거니까요, 충분히…….

○ **지민규 위원** 가능하겠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방식이 국가에서 아산에 줘서 아산에서…….

○ **지민규 위원** 지금 시작도 제대로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때까지 충분히 가능할지 해서 실장님, 이 부분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우리 연구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만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지민규 위원** 76페이지 보시면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고요, 사무용품비가 많아서 쪽 봤는데 '23년도 6월부터 6개월 동안 사무용품 예산 800만 원 중 400만 원어치 복사기 토너 사셨어요.

170만 원어치 복사용지 사셨고요.

보통 토너를 사면 검정색이 제일 많이 닳지 않나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예.

○**지민규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다른 컬러들의 한 2배, 3배 속도는 빨리 닳는데 파랑, 노랑, 빨강 5개씩 사셨고 330만 원어치, 검정 4개 사셨거든요.

보통 이렇게 토너를 400만 원어치 사나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보통 비치해 놓고, 한 번 살 때 사놓고 나서 떨어질 때쯤 돼서 다시 또 주문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보니까…….

○**지민규 위원** 이렇게 좀 많이 구매를 보통 하나요,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사업들, 비슷한 예산들의 사업들을 쪽 봤습니다.

사무용품비가 이 정도로 책정돼 있지 않고요, 유일하게 지금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으신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여기는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800만 원이더라고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을 1만 2000명을 진행을 하셨어요.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 정도로 용지와 토너가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참석자, 계획 잡히신 거 행사 운영 40명씩 10회, 그 외에도 하셨는데 별도로…… 인쇄비도 사실 지금 500만 원이 따로 책정돼 있거든요?

인쇄비가 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토너를 400만 원어치 구매하시고 복사용지 170만 원어치 구매하시고, 지금 내년도에도 토너 170만 원, 복사용지 120만 원치 구매 예정이다.

인쇄비가 별도로 500만 원이나 있고 1만 2000명 진행한 행사에도 지금 사무용품 구입비가 800만 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싶습니다.

'24년도에 컨소시엄이 많아서 사무용품 사용량이 많으셨다고요?

답변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네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저희가 이 사업이 연속 사업이기는 하나 매년 평가를 받고 보고서를 발행해야 되고 연차 보고서를 발행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별로 결과보고서가 별도로 인쇄가 돼야 되는 인쇄비이고요, 나머지 토너나 복사지나 이런 것들은 연구 활동 진행 중에 만들어지는 중간 산출물에 대한 인쇄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TP나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해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여러 사업 시행 주체인 곳들을 쪽 봤는데 회의 대비 가장 사무용품비가 많은 데가 유일하게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인 것 같습니다.

'23년도, '24년도 컨소시엄 진행 내용 및 참석자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24년도 10월 10일부터 11일 리솜에서 진행된 충남연구원 워크숍 관련 예산 지출 세부 내역 주시고요, 강의 시간, 강사, 강의 내용 등 자료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22년 10월 27일 인공지능 실증랩 개소 이후에 추진 현황 및 예산 지출 내역 자료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24년도 충남연구원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 예산 지출 내역, 강사 내역, 강의 내역, 회의 내역, 회의 참석자 등 일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특히 일반 용역 980만 원에다가 개발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1000만 원 전용하셔서 했던 관련 서류들을 용역 계약서 포함해서 자료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년도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관련 세부 운영 계획, 산업경제실에 검토보고 올리신 거 있죠?

또 연구원 내부에서도 검토하신 자료들을 순차대로 일자별로 해서 정리해서 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감사합니다.

○**지민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혁신클러스터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추경 때 감액이 됐던 내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기획평가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추경은 31쪽이고요, 본예산은 165쪽입니다.

기존에 4억 500만 원이었어요.

그것이 1억 9500을 감해서 R&D 및 비 R&D 과제 관리를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2억 1000만 원을 줘서 시행한 거겠죠?

기획평가관리비라는 게 뭔가요?

과제 관리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한 해에 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다음 예산에, 단년도 사업이니까 평가를 제3의 기관인 충남지역산업진흥원이라고 -평가단이라고 돼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맡기는 겁니다.

○**구형서 위원** 어쨌든 4억 500에 할 수 있는 거를 2억 1000에 일단 했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R&D 및 비R&D 과제 관리인데요, 제가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25년도 본예산에 보면 여기는 비R&D는 빠져 있고 R&D 과제 관리 및 기획이라고 쓰여 있어서 4억 500만 원이 또 책정돼 있거든요.

비R&D도 포함이겠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구형서 위원** 저는 이게 한 2억 1000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감액되지 않은 사업을 평가했던 어쨌든 평가하는 거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2억 1000에 할 수 있었던 걸 굳이 4억 500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국비랑 지방비랑.....

○**구형서 위원** 비R&D 부분은, 계속 말씀하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국비랑 지방비랑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국비는 국가

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주는 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고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구형서 위원** 아닐 걸요? 맞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런데 추경 내용 31쪽에 보면 ‘변경’ 그래서 네모 2개 쳐져 있는 거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이고, 첫 번째 동그라미는 고도화 R&D에 관련돼서 중추 기업 지원 해서 전액 국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비R&D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20억 7900만 원이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 **구형서 위원** 저는 이 항목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그럴까요?

이 점이 동그라미 위에 있지 않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거기 지금 20억 7900만 원에 국비도 6억…….

○ **구형서 위원** 있죠, 6억 1500.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그중 이게 전액 국비라는 건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그 안에?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전액 국비인지 도비 항목인지 그걸 정하는 거, 세부 내역별로 국비가 지원되는 거, 도비가 지원되는 거 목이 다 정해져 있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잠시만요.
(자료확인)

제가 -이 사업 있잖아요- 추경이랑 내년 본예산이랑 순수 도비로만 들어가는 사업 목록을 드릴게요.

○ **구형서 위원** 좋아요, 오케이.

그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4억 500만 원에 했던 것을 2억 1000에 했는데 2억 1000에 할 수 있으면 굳이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퀘스천(?).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여기에 얼마 주라고 찍어서 내려오는 돈이면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구형서 위원** 확실히 다 국비라는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맞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

○ **구형서 위원** 일단 그건 해서 주시고요, 본예산 767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15개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인데 12개만 돼 있어서 천안·보령·계룡이 빠져 있던 말이에요.

천안·보령·계룡은 시군에서 매칭을 안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요조사 할 때…….

○ **구형서 위원** 시군에서 참여를 안한 거지요?

제시를 안한 거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안한 건데 공모를 신청할 때, 내년에 공모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할 때…….

○ **구형서 위원** 이거 '25년도 내용이에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요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아까 다른 사업도 보면 저희가 늘어난 금액이 있잖아요.

공모할 때 실제로 늘어서, 천안이 내년에 공모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의 전

체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천안·보령·계룡을 포함시키면 각 시군별로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국비가 그만큼 늘게 되면 내년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천안이 되면…….

○ **구형서 위원** 현재 기준에서 국비는 179억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는 거죠.

○ **구형서 위원**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안 기준에서 판단한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년에 공모를 할 때 12개 시군이 신청을 할 거다 이 정도로, 그리고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구조이니까.

○ **구형서 위원** 어느 정도 내시도 돼 있지 않은 거에서 계획만 수립한 거예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올해도 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올해도 했죠.

○ **구형서 위원** 올해 규모는 얼마였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잠시만요.
(자료확인)

○ **구형서 위원** 사실 이 사업에서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적은데…….

○ **산업경제실장 안 호** '24년도에 240억 5800만 원 했습니다.

○ **구형서 위원** 240억이요, 총사업비?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국비가 111억 이었고요, 내년에는 총사업비 한 405억 정도로…….

○ **구형서 위원** 이걸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든 15개 시군에 다 해 주려고 계획을 계속 수립하시는 건데 수요가 없었지만, 신청을 안 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시군을 다 챙겨야 된다고 하는 건데 3개 시군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예요?

의지가 없는 건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대상지를 못 찾았겠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원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 **구형서 위원** 2개 이상.

○ **산업경제실장 안 호**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열을 해야 되는 데들 그 다음에 태양광을 해야 되는 데들을…….

○ **구형서 위원** 사실 말이 안 되죠.

다른 시군이면 몰라도 천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의지가 없는 거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의지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아까 말씀 주신 거는 자료가 바로 안 되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자료확인)

○ **구형서 위원** 시간 계속 가니까 일단은 끝내고요.

○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추경 87페이지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해서 이거 답변을 실장님 말고 누가 답변하실래요?

경제진흥원에서 나와서 하실래요, 김관동 과장님이 하실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87페이지 운영비요?

○ **위원장 안종혁**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 지원인데 리모델링이네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경제진흥원에서 리모델링에 관련은.....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기정예산에서 추경 증액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해서 하는 내용이 됩니까?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현재 저희 청사 1층이 비어 있습니다.

2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감사팀이 신설되면서 공간이 좀 더 필요한데, 1층을 추가로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1층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커피숍 내비두고, 그렇죠?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이불가게 했던 데 하고 중간 통로까지 연결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는 양쪽이잖아요, 지금 빈 데가.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옆에서 보면 이불가게 했던 앞쪽하고 그 뒤쪽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터서 하나의 사무실처럼 한다는 거예요, 양쪽을 쓰신다는 거예요?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양쪽을 써야지 그 공간은 소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합쳐서 쓸 수는 없고요.

○ **위원장 안종혁** 사무실 용도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실은 위층으로 가는 거고요, 옆에는 강의장식으로 2층에 있던 강의장을 밑으로 조금 더 규모 있게 크

게 내리고 그 앞쪽에는 덱스터(dexter)라고 코트라 연계 사업, 공모 사업하고 연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건 몇 년 사업인데요?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지속 사업이고 이게 선정되면 사업비는 코트라 쪽에서 나와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임대료 해서 무상으로 건물을 제공해야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그걸로 쓰고, 그렇죠?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구조적으로 위아래로 바꾸기는 하는데 주요 사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 지난번에 외국인유치센터를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기로 했잖아요?

○ **위원장 안종혁** 얘기가 다르잖아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빼놓고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층에 왔다갔다 하는 데 사무실을 늘려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외국인유치센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1층에 만들지 기존에 있는 3층이나 4층에 들어 가야 될지, 이 층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수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은 빼놓고 하셔서 추가로.....

○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종혁** 죄송할 일이 아니죠, 예산 심의 하러 왔는데.

뭐에 쓰는지를 알아야지 예산을 통과를 시키든 삭감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추경이죠, 이 예산이?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 완료가 돼요, 회계 정산이?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올해 완료가 됩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설계 벌써 들어갔어요?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터나 이런 사업들이 이미 신청돼야 돼서 우선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승인받으러 와요, 그냥 하시면 되지.

상반기 때도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2월 2일이죠.

예결위까지 통과되면 며칠입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빼고 며칠 내로 이거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공사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8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평형대가 몇 평이에요?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한 80여 평.

○ **위원장 안종혁** 양쪽으로?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80여 평이면 평당 인테리어비가 100만 원씩은 되는 거네요.

철거할 일은 없잖아요, 제가 가봐서 아는데.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철거도 일부 있었습시다.

○ **위원장 안종혁** 철거도 일부 있고?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 **위원장 안종혁**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하는지, 급한 게 있어서 이미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경제진흥원 예산으로 하세요.

이걸 왜 회계연도에도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추경에다 올려놨습니까?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그럴 경우, 내부 비용을 활용할 경우에…….

○ **위원장 안종혁** 일자리진흥원하고 합하면서 일자리진흥원에서 13억 7000만 원 간 거 있죠?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경제진흥원 출신이니까 확인해 봐야겠죠.

13억 좀 넘게 있는데 예산 있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출연금이 이렇게…… 이거 적정한지 아닌지도 저 지금 시간 관계상 꼬치꼬치 안 묻는 것뿐이거든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조정해서 갖고 오는데, 이거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죠?

이게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저희도 검토를 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과

답변을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형서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24년도 에너지 정책 홍보 현황 자료 요청드렸잖아요?

아마 1차에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 계시나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료가 많아서?

우선은 연도별로 모 언론사 등을 통해서 이게 지면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면?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 **구형서 위원** 이게 몇 회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 **구형서 위원** 예.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언론사별로 1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2개사입니다.

○ **구형서 위원** '19년부터 '23년까지 했고, '24년부터는 2개사이고 그전에는 1개사였잖아요.

1개사면 4000이었나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똑같은 5000이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예?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5000만 원 가지고 금강일보한테 '19년부터 '23년도까지 기획보도를 했고요, '24년도부터는 3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금강일보 5000만 원, 대전일보 3000만 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제가 이걸 보면 어쨌든

10회 이상이니까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더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네요. 협약 나름이긴 하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가지고 그 이상도 되고요, 뒤에 첨부 자료 보면 그동안 신문에 쪽 나왔던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첨부했습니다.

○ **구형서 위원** 몇 개만 좀 본 건데 몇 개만인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면에서 글씨 깨알같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첫 눈에 보이지 않고 맨 하단에 있는 내용이 가장 첫 눈에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구형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관련된 홍보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지면을 활용해서 넣을 것이 이거밖에 없나?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에 하나는 십자가 형태로 해 놓고 하나는 원형 형태로 해 놓고,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저희들은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기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은 광고용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안에 보면 기타 석탄 화력이 왜 필요한지, 왜 폐지됐는지, 특별법 그런 부분들이.....

○ **구형서 위원** 그 위에는 기사 내용 있고요, 알겠는데 맨 하단에 지면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구형서 위원**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이 내용 안에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넣

어서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어차피 우리가……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구형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충분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요…….

○ **구형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내에 있는 어떤 유망한 기업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든지 우리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든지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넣어주면 오히려 좀 더 뭔가 있는데 매번 샘플로 넣어놓으신 내용으로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충분히 이해했구요.

○ **구형서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쓸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25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내용을 담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실장님, 클러스터 이야기하면서…… 클러스터 이야기했을 때였나요?

맞죠?

그 기업들 얘기한 게 클러스터였죠.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 특구 사업 페이지 325쪽인데요, 거기서 제가 연료전지 기업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도내의.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그 자료 보실 수 있나요?

그것도 1차에 주셨던 내용이 있거든요.

(자료확인)

자료는 없네요.

넣었다고 돼 있는데 자료는 없어요.

있어요?

보고 계시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보고 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지금 우리가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그냥 그린암모니아라고만 할게요, 이름이 길어서.

이 사업 시행 주체가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주식회사 에프씨아이, 주식회사 케이세라셀, 주식회사 아이원, 트윈에너지 이렇게 기업은 4개고, 하나는 과학기술연구원하고 고등기술연구원, 충남TP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주로 주관하는 게 에프씨아이와 대전이었고 아이원도 대전이고 케이세라셀하고 트윈이 충남이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하나는 아산이고 하나 금산.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구형서 위원** 그래서 보면…… 아, 넥스플러스 같은 데도 1174명에 매출 규모도 꽤 되고 그리고 미코파워 같은 데도

꽤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매출 규모로 따지면 수경화학도 좀 되고 하는데, 우리가 과제 성격하고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차이에 의해서 매칭이 잘 안됐을 수도 있지만 도내 기업에서도 이렇게 유망한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서 자료를 보고 좀 파악을 하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소 관련 기업들이 한 팔십몇 개 정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말고-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 기업들이

○**구형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린암모니아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 현황만 주신 거거든요.

제가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까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린암모니아 가지고 연료전지 실증하고 활용하는 거 관련해서는 그래도 수소발전 규제특구 사업 해서 연료전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도내 기업들의 참여가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네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케이세라셀 같은 데들은…… 지금 드린 게 아까 주관 에프씨아이 말고는 도내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구형서 위원** 여기가 다 참여하고 있는 곳이에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구형서 위원** 그런데 제가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MOU 체결하는 데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에프씨아이하고 케이세라셀 그리고 사업 내용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프씨아이, 케이세라셀하고

아이원하고 트윈에너지만 참여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사업 시행 주체라서 일단 메인은 그쪽이고 나머지는 참여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잠시 못 들었는데 에프씨아이도 지금 대전에 있는데 TP로 이번 달 12월 15일까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구형서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전 하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규모는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리고요, 또 아이원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이원도 마찬가지로 TP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렇게 기제가 돼 있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현재 경기도에 있는데 여기 이전하는 거로.

○**구형서 위원** 이전도 좋은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내에 있는, 이거 자료 주신 거에는 참여한다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다 참여하는 기업들입니다.

○**구형서 위원** 이 중에서 메인으로 우리가 이 책자에서 보면 기업은 4개로 기재돼 있어요, 실장님.

여기 326쪽 보면.

그래서 이 4개 기업만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나머지는 서브로 참여하는 거겠죠?

명단을 주셨으니깐, 기업 리스트를 주셨으니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구형서 위원** 충분히 우리 도 내에서도 육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앞서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산출 근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혹시 관련 본부장님 답변식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 **김도훈 위원** 연구원으로 통합되기 전 과학기술진흥원일 때는 경영평가가 2022년도, 2023년도에 무슨 등급을 받으셨어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통합 직전에는 라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23년도에는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통합이 된 상태에서의 평가라 충남연구원과 같이, 보는 바와 같이 가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도 마를 받고 2023년도에도 마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왜 2년 연속 마를 받죠?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충남연구원은 계속 가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 사업을 받아오면서 지금 수행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연구 수당이 포함돼 내려오니까 경영평가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거를 그냥 대충대충 했던 건가요, 그때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거기까지는 제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다만 연구 수당이 나오는 과제는 충남연구개발 지원단 사업 그 하나만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연구 수당으로 말미암아 경영평가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 **김도훈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충남연구원으로 소속되면서 충남연구원은 2년간 높은 등급 가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과학기술진흥본부는 별다른 노력 없이 지금 연구원으로 통합되면서 연구 수당을 제외한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아시죠?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과학진흥본부에 지금 11명 정도가 계신데 평균 900 정도를 더 받으셨더라고요, 11명 다.

한 분당 900만 원씩 받았는데 공공기관 통폐합 가장 주된 목적이 예산 절감 아닌가요?

원래대로 저번에는 국비 사업을 받아와서 그걸로 했는데 통폐합되면서 국비 사업도 하시고 여기서 지금 900만 원씩을 더 받으신 거예요, 열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단 충남연구원하고 통합이 된 후에 올해

를 비추어서 판단해 볼 때 올해 있는 경영평가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시절의 실적 그리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일 때의 어떤 성과들에 대한 것들이 충남연구원의 경영평가에 포함이 돼서 좀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한 조직 형태로 평가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마를 받았어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은 계속 가를 받아왔고요.

그렇죠?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 **김도훈 위원** 이제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들어가면서 과학기술진흥원은 업그레йд가 돼가지고 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영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경영평가가 좋아지고 가를 받으면서 11명 한 분당 900만 원씩을 더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분들은 받았어요.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단 통합이 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21년도에 생기면서 조직의 어떤 운영 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평가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충남연구원 본원의 경우는 29년

된 지방자치 출연 공공기관으로 나름대로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도의 스킬은 신생 조직이었던 충남과학기술진흥원보다는 훨씬 조직 운영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성과 창출이 유리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미미한 점들은 아마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저희 본부조- 본부에 대한 성과는 낮았을 지언정 일부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성과 창출에 있어서는 충남연구원 역시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쭙 볼게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공공기관을 다 통폐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김도훈 위원** 그런데 통폐합시키는 이유는 예산 절감이잖아요.

일하지도 않고 이렇게 열한 분들한테는 그냥 불로소득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닌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도 차원에서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공기관도 통폐합을 하는데 좀 더 한번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예 김도훈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 **위원장 안종혁**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힘드시겠네.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많이 힘드시죠?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아닙니다.

○ **위원장 안종혁** 아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진흥원일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제가 여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기대치나 다른 공공기관하고의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아직 할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되는 말씀이어가지고 딱 짧게 정리해서 말할 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산출기초나 산출 내역에서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물론 국비를 따오신 것도 있지만, 특히나 도비 100%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도 있더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과학기술진흥본부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더라든가 아니면 감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의견을 좀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하다는 지적들이 몇 개의 사업에서 나왔었으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형서 위원** 제가 자료 뒤늦게 요청드린 건데, 남승홍 과장님 잠시만.

아까 에너지 퀴즈대회 관련된 거예요, 짧게 얘기하려고요.

'24년도 10월 24일 날 온라인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결승전은 오프라인으로 한 건가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구형서 위원** 맞나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구형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9개교에 164명이 참여한 거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초등학교 9개교 1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 **구형서 위원** 학교별로 약간 20명을 맞추려고 한 건데 20명만 참여하라고 한 건가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아닙니다.

23개교 36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소규모 참석한 학교는 빼고서 최소한 20명 이상 참석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4000만 원입니다.

두 가지…….

○ **구형서 위원** 4000이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4·5·6학년이면 전체 유초중고 27만이니까, 아무튼 2~3만 명 정도가 한 학년에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온라인은요.

그렇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구형서 위원** 맞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학생이 참석을 한다 하면…….

○ **구형서 위원** 그래서 이걸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하세요.

이거 4000만 원 들여가지고 고작 164명,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수준 164명이 여기서 골라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뭐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딱 뒤에 보니까 도지사상도 주고 교육감 상도 주고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상도 주네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구형서 위원** 참 좋은 것 같거든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 **구형서 위원** 좋아하는데 164명이라니까요.

온라인으로 하는 건요, 몇만 명이든 무슨 상관이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 이야기거든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참여율 제고에…….

○ **구형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 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계획을 수립한 걸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공문을 뿌려가지고 수요조사 해서 하는 걸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

하고 만족도나 이런 평가도 하셨을 텐데, 올해에도 이거 할 거잖아요?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25년도에도 합니다.

○ **구형서 위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164명 가지고 할 거면.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대규모 아이들이…….

○ **구형서 위원** 4·5·6학년 하면 도 내에는 한 6~7만 명 있을 거예요, 전체.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 **구형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이해했습니다.

○ **구형서 위원** 이거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 오늘 회의 이후에 바로 협의하시가지고 그 확답 받고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과장님은 앉으셔서 들으세요.

이거 사업 상반기에 교육위 하셨던 구형서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교육청과 협의할 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이랑 협의해 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 **위원장 안종혁**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탬 테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안종혁**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상도 하나 좀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상도 하나」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종혁** (웃으며) 아니, 아니. 저희 의회도 함께 좋은 성과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구형서 위원** 탄소중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마이크 켜고 얘기해주세요.

○ **구형서 위원** 발언권 안 주셔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관련해서 소재지랑 달라…… 지금 신탁에서 200억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지민규 위원** 지금 회사 소재지랑 달라도 타지 신탁 가서 똑같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생각할 때는 회원에 가입이 되면, 신탁에 가입이 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 **지민규 위원** 신탁은 조합 단위여서, 예를 들어 아산에 있는 신탁 4개에서도 각자 신탁이 각자 조합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아산에 있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이런 거랑 같은 단이잖아요.
주소가 달라도 가입이 되잖아요, 회원

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거기 가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꼭 주소지를 따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지민규 위원** 그래서 저희 융자 지원 이런 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역이 상관없이 조합원만 돼 있으면.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 표현을 조합원인지 회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지민규 위원** 저희가 손실보전 폐업으로 인해서 지원된 다섯 곳 중에서 한 기업이 두 곳에서 가장 큰 금액의 손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지민규 위원** 제가 지금 130개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현황을 다 봤는데요.
130개 중에 소재지와 다른 신탁에서 대출을 받은 회사는 이 회사가 유일하더라고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네요.

○ **지민규 위원** 그리고 '22년 3월 28일 날 대출 천안에서 하신 다음에 갑자기 5월 3일 날 한 달 뒤에 바로 또 공주 중앙회에서 대출을 또 받으셨고요.
그리고 총 합해서 1억 1000 대출을 받으셨고 가장 큰 손실보전을 또 일으키셨는데 폐업이 '24년 6월 30일 날 하셨는데 '24년 3월에 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저희 충남도에서 또 진행을 해 줬더라고요, 폐업 3개월 전에.
그런데 지금 언론을 찾아보니까 진천에서 또 똑같은 사업자를 내셔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또 '18년도부터 저희 창조, TP 되게 다양한 곳에서 지원사업

을 계속 받아오셨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실은 밑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받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소재지와 다른 데서, 또 두 군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맹점이, 사회적경제기금을 가지고 자금 지원해 주는 맹점이 누군가 하나가, 지금 중소기업 같으면 신보에서 통합해서 관리가 되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지금 우리 도의 직원들이 신협에서 여기를 대출해 주겠다 하면 확인을 해 주는 건데 보통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을 하면 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의 직원들이 신협에서 문의가 왔을 때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 체크를 했었으면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동일 연도에 -해가 달라지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 동일 해에, 동일 연도에 다른 지역의 신협에서, 아무래도 신협이 2금융권이다 보니까 대출 요건이 좀 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된 지는 지금 알았는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이렇게 폐업하기 전에 충북 진천에서 먼저 폐업을 했더라고요.

또 다른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 같은 대표가 운영을 하시다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금 용자 지원의 허점을 오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 측과 긴밀하게 소통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규 위원** 추가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된 지원사업들 정말 많잖아요.

이 사업들까지 이런 게 다시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거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 이렇게 문제 있는 기업들 때문에 다른 선량하고 어렵고..... 본래 취지대로 가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다 동감을 하실 텐데, 신협이 그거 잘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같이 고민을 해 보세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모는 2개를 선정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공모 중이거든요.

사실 사회적기업들의 재무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크지 않으니까 저희는 1금융권을 생각하고 2개에 공모를 했는데 1금융권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호의적이지는 않은데 공모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저희가 관리는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관동 과장님, 지민규 위원님한테 그 대책도 같이 고민을 좀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김도훈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페이지 557페이지 보시면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식으로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 **김도훈 위원** 지금 유인 쉼터 하나랑 무인 쉼터 4개 그다음에 연계형 쉼터 35개가 있잖아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맞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유인 쉼터는 지금 어디에 있죠?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천안 두정동 먹자골목 안에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다음에 무인 쉼터 4개는 어디에 있어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천안 신방동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 신용화동 쪽에 있고 그다음에 당진의 먹자골목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도 먹자골목 쪽으로 해서 4곳에 무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저도 가끔 대리기사님을 이용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봐요.

그런데 유인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에 있죠?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2층입니다.

○ **김도훈 위원** 거기에 한 이유가 뭐예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지금 2층은 임대료가 월 99만 원인데 1층은 임대료가 월 240만 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고, 그래서 두정동에 1층을 유인 쉼터로 하기에는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상태상 2층이나 3층 정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하게 됩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유인 쉼터는 임대 계약을 몇 년으로 하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끝났고 도비로 지금 해서 3년간 위탁해서 그 이후에 운영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원래 최초의 임차계약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 위탁 동의를 돼서 지금 위치를 다시 바꾸지는 않고, 만약에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임차 보증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그대로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혹시 약주 드시나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대리기사님들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많이 하면서 저희 설명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혹시 두정동에 있는 유인 쉼터에 가보신 분들이랑도 얘기해 보셨나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저희가 유인 쉼터 이용하는 분들하고 배달 쪽이나 대리 운전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제가 직접 '23년도부터 '24년도 초반까지 한 네 번 정도 간담회를 했었고 라이더 대표 하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직접 운영 했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저는 지금 유인 쉼터 있는 데 가까운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계신 대리기사님들을 많이 이용해서 얘기를 해 보면 2층에 있어서 불편하시다는 게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동수단을 갖고 다니시는데 그걸 2층까지 갖고 갈 게 안 되니까, 그리고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도 제일 사이드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뭐

냐 하면 차라리 무인 쉼터를 편의점이나 그런 가까운 쪽에 빼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지금 유인 쉼터가 메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 쉼터에서 관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과 연계형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력이 투입되는 형태의 유인 쉼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40개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인 쉼터를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종합 관리 하는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인 쉼터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쌍용동 쪽도 알아보고 두정동 쪽도 '23년도에 현장을 몇 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했었는데, 주요한 거는 사실 재정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240만 원 월세를 들어서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건지, 아니면 99만 원 월세를 들이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재정 투입 여건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무인 쉼터는 1층에 두는데 유인 쉼터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4층에 있고 약간의 그런 조건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4층에 있는 유인 쉼터가 대전에서는 관제센터예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대전은 저희하고 다르게 하나의 쉼터만 있는데 1층은 거의 가격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는 큰 건물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용들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적고, 저희도 두정동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3층 건물을 확인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2층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분들의 의견에서 1층 말고 2층으로 했을 때는 거기가 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두정동에 두게 됐습니다.

○ **김도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지역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되게 많이 그분들이랑 얘기를 나눠요.

나누다 보면 거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임대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차량 렌트비랑 차량 유지비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그동안 고용노동부랑 5 대 5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차량 렌트가 안 돼서, 무인 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무인 쉼터에 물품하고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비치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 차량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 도비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차량을 임대해서—그걸 운영하는 부분들이 개인 직원 차량으로 했을 때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인 쉼터하고 연계형 쉼터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차량 렌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 쉼터에도 흑한기에 난로…….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저희가 지금 안전물품하고 그다음에 흑한기·흑서기에 방한 물품, 방열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핫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제빙기를 통한 얼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는 장갑이나 아니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충전이나 드라이기를 통해 말리는 거 그다음에 우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물품 관련한 부분들과 같이 현장에 계속 비치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회를 해서 부족한 물품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무인 시설 같은 데는 갖다 놓으면 한 사람이 10개를 갖고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저희가 100% 그렇게는 하지 못해서 안내문이나 저거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관제 시스템이 있어서 관제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인 쉼터하고 쌍방향 채널이 있어서 눌러서 얘기하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과하게 저거하게 되면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장기적으로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소수가 많이 가져가지 말고 필요하면 한두 개 정도 꼭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왕창 가져 가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없는데, 양말 같은 경우가 최고 많은데 두세 개 정도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홍보물품 제작비 현수막 거재 등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내년 예산에 보면요.

올해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하셨었나요?

홍보물품 제작하고 현수막 거재를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현수막은 올해 상반기에, 이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 15개 시군을 순회해서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세법 교육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쉼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집중된 먹자골목 중심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물품이나 방한물품, 방서물품들을 준비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품 비용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내년 산출기초에는 안전물품 대비 키트 구입 그다음에 탕비비, 사무실비, 소모품 구입비랑 그다음에 홍보물품 제작비, 현수막 거재 등이 있잖아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거 2024년도 사용 상세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출 상세 내역서도 부탁을 드릴게요.

○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알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규 위원** 시간이 늦었으니 짧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어디서 말고 있을까요?

○ **산업경제실장 안 호** 노동권익센터요?

○ **지민규 위원** 예.

○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지민규 위원** 여기에서 '23년도, '24년

도 자문 그다음에 회의 진행 하신 게 횡수가 좀 많아서 회의 내역이랑 참석자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요, 감정 노동자 심리 상담 수당 등 해서 17만 원씩 500회 해서 8500만 원 건이랑 또래지킴이 및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800만 원 딱 1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 캠페인, 이 세 가지는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노동권익센터 내년도 운영 계획 사업별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에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 이 3개 분야 사업은 어디서 위탁하고 있을까요?

531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것은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수탁 기관을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직 시작한 건 아닌가요, 이전에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신규 사업인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런데 아마 노동권익센터를 맡은 기관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민규 위원** 이것도 세부 사업 계획서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들이 공모 신청 했던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되게 자세하게 노동교육 보조인력비 9만 4000원씩 50회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거 보니까 한 곳에서 이미 상세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모 신청 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국비로 하는 겁니다.

○**지민규 위원** 예, 국비가 1억 2000으로,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이니까요, 수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일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내일 위원님들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모레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제가 아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잠깐 바로잡아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종혁** 답변 종결 선포했는데요, 말씀하시지요.

(장내웃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까 그린 암모니아와 관련해서 8개 목록이 전체 사업에 참여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 2개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TP로 이전하는 대상들은 2명~3명이고요, 사무실 규모는 20평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경제실 소관 4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5일 제5차 기획경제위

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9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10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안종혁	구형서	김도훈	박정식
안장현	이정우	이종화	지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김선태

○ 출석공무원

〈산업경제실〉

실장	안 호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바이오산업과장	최원혁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 기타참석자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	최성민
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	-----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경영본부장	김진혁
-------	-----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김재준
-----	-----

○ 속기공무원

박현숙 강미선